

Style

조선일보

JANUARY
2022 vol.231



Cartier



"LET TIME FLY. YOU MIGHT GET TO AN EXCEPTIONAL PLACE."

YIQING YIN,
HAUTE COUTURE CREATO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ÉGÉRIE.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FUR for FEET

포근하고 우아하며 세사하기까지 한 퍼주는 보온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샤이링 심스킨을 두른 하이부츠 기력 미정 **샤벨**, 문의 080-200-2700, chanel.com, 슬라핀 울 스타일에서 샤이링 퍼로 겨울의 낭만을 다한 **팬디 퍼스트 스타일** 1백만원대 **팬디**, 문의 02-514-0652 포드그래퍼 **화전영** 에터 **이주이** 아사스틴트 **베사린**



YEAR of THE TIGER

바쉐론 콘스탄틴이 2022년 호랑이의 해를 기념해 특별히 선보이는 메트로에 다른 레전드 오브 차시리즈 조디악 에디션, 핸드없이 각 사이드에 배치한 4개의 창을 통해 시, 분, 요일, 날짜를 표시하는 메종의 칼리버 2460 G4로 구동하며, 다이얼 중앙에는 플라타늄 또는 핑크 골드 소재에 호랑이 모티프를 새긴 조각을 반매립 형태로 골드 베이스에 얹어 예술적인 입체감을 선사한다. 플라타늄 케이스에는 다크 블루를, 로즈 골드 케이스에는 핑크 브라운 미사피 알라게이터 스트랩을 매치해 풍격을 더했다. 플라타늄 모델 1억4천7백만원, 핑크 골드 모델 1억4천7백만원, 문의 1670-4606



SIMPLE CHARISMA

까르띠에 메종의 시그니처, 팬더. 팬더의 강인함과 강렬한 이미지는 심플한 뱅글이나 네크라스로 표현해도 본래의 야생적 카리스마와 과감한 매력을 발휘한다. 팬더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싶지만 과하게 느껴진다면 좀 더 간결하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광범한 일상에서 부담 없이 착용하기 좋은 시선을 시로잡는 버전의 팬더 드 까르띠에는 아말가, 18K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로 이루어진 심플한 버전부터 팬더의 머리에만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 다이아몬드를 풀 세팅한 버전의 뱅글까지, 세 가지 스타일의 뱅글과 18K 옐로 골드 소재,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2개 버전의 네크라스로도 만날 수 있다. 문의 1566-7277



시간 여행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새해 다이어리,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그니처 모노그램과 홀스빗 디테일로 장식해 특색 있고 아이코닉한 무드를 주는 노트는 36만원 **구찌**, 문의 02-3452-1921, 직접 쓴 종이 위 손글씨를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울트라블랙 칼렉션 어그먼트 페이퍼 1백1만원 **몽블랑**, 문의 1670-4810, 메종의 헤리티지인 **팬디** 모티브를 깔끔하게 새긴 AS 3개의 **팬디 드 까르띠에** 노트북 31만원 **까르띠에**, 문의 1566-7277 **포드그래퍼** **정진영** 에터 **장영민**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꽃향기 속으로

다채로운 색상이나 공격적이고 생기 넘치는 순간의 에너지를 담은 미스 디올 오드 퍼퓸, 풍성한 플라워 부케를 담은 듯 피오니, 아이리스, 은방울꽃의 강렬한 플로럴 노트로 시작해 샌티몰리아 로즈가 매혹적인 향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어 마치 봄날의 정원을 거니는 듯 로맨틱한 느낌을 준다. 베이스 노트의 은은한 우드 향은 관능적인 여운을 남긴다. 50ml 16만3천원대, 문의 080-342-9500



2022 NEW LIMITED

새해가 열리는 또 다른 이유, 뷰티 리미티드 에디션. (왼쪽부터) **자침시 뷰티 로 루즈 딤 벨벳 N37** 매트한 피오니가 매력적인 자침시 뷰티의 아이리니 립스틱으로 상징적인 4G 로고를 담겨 더욱 특별했다. 3.4g 4만9천원대, 문의 080-801-9500 **나스 리브 에어에 얼룩선 라이트 리플렉팅 샤페인 파우더 - 프레스드 트윈스루센트 크리스탈** 이후로도 바르지 않은 듯 가볍고 성세한 포플러로 완벽한 피부 표현을 돕는 시퀀스 파우더 10g 5만5천원, 문의 02-6905-3747 **디올 뷰티 루즈 디올 뉴 룩 리미티드 에디션** 디올 하우스에서 영감을 받은 상징적인 하운즈투스 모티브를 케이스 디자인과 립스틱 컬러로 재해석한 여성 기지 컬러의 리미티드 립스틱 3.5g 5만9천원대, 문의 080-342-9500 **포드그래퍼** **정진영** 에터 **장영민**

찰칵!

빠어난 디자인과 성능을 갖춘 라이카의 신작 Q2 리포터, 짙은 녹색 보드에 뛰어난 탄력성을 갖추고, 열이나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카메라를 보호하는 케블라 워킹 패턴을 적용해 실용성과 미감을 모두 충족했다. 르포르타주(周) 사진의 역사를 아슬히 느낄 수 있는 라이카의 대표작인 프로미엄 콤팩트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주미루스 렌즈와 풀 프레임 센서로 어느 상황에서도 세밀하고 완벽한 촬영이 가능하다. 한정으로 선보이는 에디션으로 소장 가치도 높다. 8백75만원, 문의 1661-0405



감각적이고 프라이빗한 위스키 공간



세계 최대 수상 경력에 빛나는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피딕을 사랑 하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 **글렌피딕 26년 그랑 코론**(Glennidich 26 years Grande Couronne) 출시를 기념해 **글렌피딕 26년 그랑 코론** 룸 캠페인을 통해 **콘셉트** 공간을 공개 한다고 밝혔다. 이 공간은 **글렌피딕 26년 그랑 코론**만의 특별한 정취를 시공간으로 구현해 위스키를 보다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구성했다. 서울신라호텔 1층에 위치한 **더 리아브라더** 내 VIP를 위한 **프라이빗** 공간으로 꾸민데, **글렌피딕 26년 그랑 코론** 테이스팅 세트 주문 시 이용 가능하다. **에베레드**빛과 황금빛 장소로 채운 이 공간은 르네상스 시대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무드도 그랑 코론만의 럭셔리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을 듯, **글렌피딕 브랜드** 매너저 박혜민 차장은 '국내 위스키 애호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수준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어 소비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콘셉트 공간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글렌피딕 26년 그랑 코론** 룸은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공극의 에너지



한살더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피부 탄력, 기존 스킨케어 루틴에 보다 확실하고 특별한 처방전이 필요하다. 라프래리 **플라뉴** 레이오드-레주베이션은 피부에 생명력과 에너지를 불어넣는 독자적인 셀룰라 콜라겐스에 새로운 플라뉴를 멀티 펩타이드를 더해 더욱 강력한 효과를 자랑한다. 단순히 피부를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피부 전체에 신선한 레주베이션 키프루를 만들어 피부 스스로 본연의 건강한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특히 **플라뉴** 레이오드-레주베이션 크림은 풍부한 영양이 녹아든 크्री미한 텍스처가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탄력 효과를 선사하며 비록 다른 감각적인 리추얼을 경험하게 한다. **플라뉴** 레이오드-레주베이션 크림 50ml 가격 7백만원, 문의 02-511-6626

MARBLE in BAG



룩에 포인트가 되거나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강렬한 마블 프린트의 신상 백을 소개한다. **팬디**의 2021 겨울 캡슐 컬렉션에서 선보인 백으로 기존 **피카부**, **비게트**, **팬디 퍼스트** 같은 아이코닉한 백에 **김준스**의 쿠티르 데뷔 컬렉션의 대표작인 마블 프린트를 담아 재해석했다. 풍성한 **피코크** 블루 컬러와 **사이키** 절묘한 매력의 대담한 컬러 팔레트뿐 아니라 **카펫** 수수 기반의 **발렛** 소재와 수공예로 표현된 **노하우**는 7번을 넘어 하나의 아트피스를 보는 듯하다. **팬디** 2021 겨울 캡슐 컬렉션은 **팬디** 뷰티 및 **fendi.com**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514-0652



가로세로
19.2 X 13.7cm
크기 무게가
1.3kg인 실용적인
컬러 6가지
전원 1인용
드롭기.



상부 상고온 차차 부 임으로
4세에서 10세, 표 140cm 42.5cm
비스무 200ml, 100% 천연 재료로
만들었다.

Selection

편안한 '집콕' 생활을 위한 침실 이야기.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전반에 로고를 새긴
아헤이트 헤드 밴드
가격 미정 셀린느.



머랭의 소용돌이 모양에서
영감을 얻은 캄나 형태의
다용도 머랭 푸프
가격 미정 루이비통
오브제 노마드 컬렉션.



고트 스킨, 벨벳,
시아링 소재를 조합해
선호하는 슬리퍼
1백만원 에르메스.



스웨디시 스타일 에르메스



클래식한
면모를 자랑하는
탱크 루이 까르띠에
워치 라지 모델
1천 5백만원대
까르띠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을 골드
아반투어 링 100만원
까르띠에
컬렉션.



유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린 시애틀의 100% 천연 소재.



포근한 감촉을 지닌
코튼 양털 100% 천연
이저벨리 양 울.



레드 리본 벨벳 거미어망 모자.



인테리어 오브제로도 손색없는
캐시미어 쿠션 1백34만원
에르메스.



보통 30이 넘는 시애틀 소재를
중요한 슬리퍼 100만원 루이비통.

인크 02-512-9711
구찌 02-3452-1921
셀린느 02-549-6631
까르띠에 1566-7277
망스미라 02-511-3835
에르메스 02-544-7722
이저벨리 양 02-516-3737 가니 02-6911-0734
풀가리 02-2056-0170 로에베 02-2056-2274
코치 080-888-1941 루이비통 02-3432-1854
리부르젝 1644-4490 드롭기 080-848-8800



THE BALVENIE®

SINGLE MALT SCOTCH WHISKY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예술혼을 기리며

자유의지의 환상을 넘어서고자 했던 현대미술 거장



해마다 부산을 일부러 찾게 만들 정도로 기대와 설렘을 안겨주는 전시 콘텐츠가 있다. 부산시립미술관의 별관인 '이우환 공간' 개관을 계기로 세계적인 현대미술가를 초청하는 기획전 시리즈 '이우환과 그 친구들'이다. 3년 전 물꼬를 튼 이 기획전의 세 번째 주인공은 유대계 프랑스인으로 당대의 거장인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 그런데 그는 작품 선정부터 공간 구성, 전시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관여하며 준비에 한창이던 지난해 7월 중순 돌연 세상을 떠났다. 그리하여 현재 부산에서 진행 중인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4.4>전은 그가 살아 있을 때 참여한 마지막 전시이자 첫 유고전이 되어버렸다. 특정 작품은 만리타국일지라도 직접 가서 자신이 설치하기를 고집할 만큼 예술에 진지하고 엄격했던 볼탕스키는 사적으로는 짓궂은 장난을 치기로 유명한, 흥미진진한 캐릭터였는데, 2015년 사진작가 히로시 스키모토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어딘가에서 전시를 준비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볼탕스키 생전에 부러운 인연의 끈을 지녔던 한 평론가가 그의 위대한 예술혼을 기리면서 추억을 더듬어봤다. /편집자 주

"당신은 나를 죽일지도 몰라요." 파리 근교의 아틀리에에서 만난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 1944~2021)가 필자에게 말한다. 그는 필자에게 그의 전시에 자주 등장하는 사진 작업을 설명하고 있었다. 사진에는 모범적인 가정의 일상이 담겨 있다.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빛, 행복한 어머니의 미소, 즐거운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관람자를 소름 돋게 하는데, 바로 사진 속 아버지가 나치 장교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침에 (유대인) 아이들을 죽인 나치 장교가 저녁에는 그의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품고 있다"고 볼탕스키는 설명한다. 이처럼 평범한 아버지가 파시스트 구조로 들어가면 상부의 명령에 순응하는 살인자가 된다. 우리라고 예외일까? 유대인 출신으로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주창한 개념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 상기된다. "내(볼탕스키)가 어렸을 때 고양이가 이웃집에 오줌을 누었다. 이웃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고양이를 죽이

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당시 유대인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었다. 사회구조가 그러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당신은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고양이를 죽여야 했던 것처럼, 나 역시 아이를 죽이게 될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당신은 나를 죽일지도 몰라요"라는 말을 던지는 볼탕스키의 의도된 행동과 고양이 에피소드는 아마도 페다수의 사람이 들이 접했을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것이다). 미술계 '슈뢰딩거의 고양이'라 할 만큼, 양의적인 볼탕스키의 고양이다. 인터뷰를 할 때마다 매번 심장이 철렁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장례식에 참석하는 심정으로 그가 살아서 준비한 마지막 전시이자 첫 유고전을 관람하러 부산으로 향했다.

출발-도착, 부산에서 진행 중인 작가의 마지막 전시이자 첫 유고전

부산시립미술관이 자부하는 기획전 '이우환과 그 친구들' 시리즈의 세 번째 전시로 앤터니 고펠리(Antony Gormley), 빌 비올라(Bill Viola)에 이어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4.4>(2021.10.15~2022.3.27)를 개최하고 있다. 전시 제목 '4.4'는 그가 태어난 해인 1944년을 의미한다. 여기에 '우연히' 한국에서 숫자 '4'가 死(죽음 사)와 발음이 같아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가 더해졌다(볼탕스키는 이를 알고는 되레 더 흥미로워했다고 한다). 볼탕스키는 '쇼아(Shoah)', 다른 말로 하면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지행한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죽음의 작가로 알려져 있다. 죽음을 다루는 작가는 많지만,



각각 다른 죽음에 대해 말한다. 죽음의 계보를 쓴다고 할 정도로 거의 모든 종류의 죽음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테이머 언 히스트의 죽음은 영국 위스키처럼 강하고 화려하나 식도 끝을 지남과 동시에 잊힌다. 반면 볼탕스키의 죽음은 오래된 프랑스 와인처럼 향기, 색깔, 맛이 심장에 배어두고, 때로는 삼한 심리적 숙취를 유발한다. 예민한 관람객이라면, 전시장에 들어선 순간 죽음의 사자가 달라붙는 것같이 소름이 끼칠 것이다. 한시라도 빨리 죽음의 사자를 떨쳐내고 싶으면서도, 내면 깊은 곳의 타나토스(죽음의 충동)본능을 자극하기에 오히려 더 머물게 된다. 볼탕스키의 '죽음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만, 우리는 애써 '달을 외면한다. 그의 장백한 달이 의미하는 것 중 하나는 자유의지에 대한 환상(illusion of free will)(프란츠 M 부케티츠)이며, 볼탕스키 식으로 말하면 '운(chance)'이다. 이러한 그의 의도를 잘 드러낸 전시로는 파리 그랑 팔레의 <모뉴멘타>(2010), 베니스 비엔날레 프랑스관 전시(2011) 등이 있다. 모뉴멘타 전시에서는 거대한 기둥기가 무한 반복하며 옷을 허공에 높이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린다. 이를 통해 자유의지가 허용되지 않는 삶의 기계적인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수많은 관람객이 재미 삼아 누르는 '버튼'에 의해 스크린에 괴물 같은 인물이 탄생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이 인물들은 어떤 의지도 표명하지 못하고 태어난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부모의 성교로 생겨난 완전한 우연의 산물로, 사회, 정치, DNA의 거대한 구조 안에서 수레바퀴처럼 돈다.

볼탕스키의 아틀리에에는 연극이 끝난 빈 무대처럼 전시를 위해 작업이 빠져나가고 행한 가운데,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작품 하나가 있었다. 가로가 긴 직사각형의 하얀 바탕에 검은색으로 '1907~1989'라고 적혀 있다. "저 작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라고 묻자, 그는 "나의 어머니(Marie-Elise Ilari-Guérin)입니다"라며 마치 실제 옆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하듯 이야기했다. 사람의 삶은 여덟 자리 숫자와 하이픈(-)으로 압축된다. 불교의 생로병사(生老病死)에서 좀 더 함축적인 생(生)과 사(死)만 남고, 노(老)와 병(病)은 하이픈으로 축약된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자 의례인 '생과 사'지만, 여기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비



1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4.4> 전시 모습. 별관인 '이우환 공간' 개관을 계기로 기획한 '이우환과 그 친구들' 시리즈 세 번째 전시의 주인공인 프랑스를 대표하는 현대미술의 거장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가 생전에 참여한 마지막 전시이자 첫 유고전이다. 오는 3월 27일(수)까지. 2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4.4> 전시장(별관) 안구. 밖에 설치된 볼탕스키의 작품 '출발(Départ)'(2021)이 보인다. 130 X 220cm, 작가 소장. 3 프랑스 파리 근교의 밀라르프에 있는 볼탕스키 아틀리에에서 미소 짓고 있는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화면 가운데 '1907~1989'는 그의 어머니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다. 이미지 제공: 심은복 4 기념비(Monument, M002TER)(1986), 300 X 127cm, 작가 소장. '어린 사람의 죽음을 주제로 한 기념비 시리즈'는 볼탕스키를 세계적인 작가로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이다. 5 '상징(Cœur)'(2006), 7번 크기, 작가 소장. '이제는 실물을 볼 수 없게 된 볼탕스키 자신의 상징비통 소리'가 사운드로 구현되고 있고 전구 하나는 심은복을 소리를 더 증폭시킨다. 6 '저장소: 캐나다(Réserve Canada)'(1988, 2021년 재제작), 7번 크기, 작가 소장. 유대인 학살과 관련된 작품으로, 카니다는 억류된 유대인의 개인 소지품을 남가뭄 창고에 나치기 불인 이빨이다. 볼탕스키는 옷을 활용해 대형 설치 작품으로 진화시켰다. 이번 전시를 위해 부산 국제시장에서 중고 옷 2천을 구매 제작했다. 7 '1백55명의 전시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 '황혼(Crépuscule)'(2015, 2021년 재제작), 7번 크기, 작가 소장. 별관인 '이우환 공간'에 있다. 8 '애니마스(Animas Chii)'(2014), 7번 크기, 작가 소장. 평균 해발 2,000m로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인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을 배경으로 한 1342피터의 영상 작품. 아우구스토 마노체르의 독재 아래 살해된 수 천 명의 정치범이 이곳에 묻혀 있다고. 1, 2, 4~8 이미지 제공: 부산시립미술관 9 '설국(Pays de Neige)'(2021), 7번 크기, 작가 소장. 생애 후반을 상징하는 천정의 LED 조명과 병상의 침대 시트를 연상시키는 흰색 천 무명(이 판테리) 같은 재단 상활을 떠올리게 한다. 10 '출발(Départ)'과 '도착(Arrivée)'이 보이는 전시장 모습. 9, 10 Photo by 고성연

집고 들어갈 여지는 없다. 그럼에도 예술가인 볼탕스키는 시시포스가 계속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밀어 올리듯(오디세이아, xi, 593~600) 개인적 신화를 밀어 올리며 자유의지의 환상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 후 개인적 신화로...

볼탕스키의 전시를 여러 번 접해본 미술 애호가들은 부산시립미술관 전시도 비슷한 것이라는 편견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는 같은 사진, 같은 금속 상자, 비슷한 전구, 옷, 등은 '재료일 뿐이기에,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이번 전시도 비슷한 재료를 썼지만, 달랐다. 그는 '절친' 이우환을 위해 그리고 한국인의 입맛을 고려해 최후의 만찬을 준비했다. '출발(Départ)'과 '도착(Arrivée)'을 한글로 직접 도안한 것도 프랑스어로 봤을 때와 느낌이 많이 달랐다. 우선 형태적으로 프랑스어는 가로가 긴 직사각형인데, 한국어는 세로가 길다. 파리 퐁파두 센터에서의 'Départ'와 'Arrivée'는 서커스 극장의 입구와 출구를 일리는 '안내내'의 느낌이 강했는데, 부산에서는 작품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어 실제감이 약화됐다. '설국'과 '린네르'(Les Linges, Metal tables on wheels, cardboard, cotton cloth, staples, neon flexible LED, 2020) 같은 작품도 거의 비슷한 재료를 썼지만, 파리와 부산에서의 느낌이 아주 달랐다. '린네르'는 보자마자 판테리와 병상을 연상시키는 직접적인 표현이었다면, '설국'은 제목 때문인지 소설 '설국'의 작가 기와바타 야스나리가 묘사한 설경을 떠올리게 했고 허공에 쓰여진 LED는 마치 자유시 형태로 쓰인 유언 같은 느낌을 풍겼다.

DNA의 운송자모만 머물고 싶지 않았던 볼탕스키는 꾸준히 개인적 신화를 발전시켰다. 그는 실제와 허상, 삶과 예술의 경계선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생기는 모호함을 그러한 신화의 표현 양식으로 삼았다. 이번 부산시립미술관 전시에서는 그 정수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이번 부산시립미술관 전시 제목 중 '4.4'는 그가 탄생한 해를 뜻하며, 전시 곳곳에서 볼탕스키가 유령처럼 출몰한다. 그의 얼굴 이미지가 전시 공간 여기저기 나타나며, 작가가 수년에 걸쳐 열중했던 영상 시리즈 '애니마스(Animas)' 속 작품 배치는 그가 태어난 날의 별자리를 본땀다. 1987년 전설적인 큐레이터 하랄트 제민은 이 같은 그의 삶과 예술을 기리며 '개인적 신화'라는, 아주 적절한 표현을 썼다.

이러한 신화적 속성은 그의 작업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사진이 어떠한 주관적 요소도 없이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절대적 복제라고 여겼다.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매스미디어를 통해 보고 듣는 이미지와 소리가 진리라고 믿었다. 볼탕스키는 일찍부터 '이미지의 순수성을 믿지 않았으며, 그의 작업은 실제와 허상, 진리와 거짓 등 고의적인 혼동을 야기한다. 존재가 빠진 옷, 내용물이 없는 금속 상자 등에서 오히려 더 강한 존재의 이미지를 추출처럼 불러온다. 마치 요제프 보이스가 자신의 사면 신화를 만들고있듯, 볼탕스키도 꾸준히 그의 개인적 신화를 확장해나갔고, 이제 완전히 그 신화 속으로 들어갔다. 글 심은복(동국대 겸임 교수·리홍-심은복 미술연구소 소장 기호 고성연)



ROCK ON

자유로운 펑크 정신과 쿠티르적 요소가 어우러진
화려하고 낭만적인 취향. photographed by Lee Jun kyong



코일 실크 릴리드 블라우스
7백43만원, 블랙 레더 팬츠 1백92만원
모두 톰 포드, 로 힐 슬림백 핏프스
1백80만원 구찌, 크리스탈 장식 픽셀
에-펠 이어링과 이어카프 모두 가격 미정
자황시, 체인 벨트로 연출한 페이퍼
크로스 네크리스 2백99만원 크롬하츠.

니트 톱 가격 미정 맨디, 하이 웨이스트 트라우저
41만원 MSGM by hanstyle.com.
크리스탈 장식 팬던트 이어링 64만원 마우미유,
창기 니트드 초커 90만원대 생 로랑 바이 안토니
바카렐로, 오른손 감각에 착용한 더블
스파이크 링 49만원, 왼손 감각에 착용한 PJ 링
89만원 모두 크롬하츠, 오른손 약지에
착용한 하트 세이프 화이트 골드 디브선 링
5백30만원 풀세양가버나.





화이트 퍼코트 1천8백50만원,
 옐로 톱 1백5만원, 스카트 2백35만원,
 메탈 네크리스 2백35만원 모두 구찌,
 DG 로고 로즈 아이링 74만원
 몰체안기비나, 로만 스타드 발레리나 슈즈
 1백48만원 발렌티노 기라베니.



레드 하트 팔렉시 드레스, 블랙 램 스킨
 다-플라잇 로 부츠, 오른손 감자에 착용한
 블루 래커 포모트 디올 드림 링 모두
 가격 미정 디올, 4G 패턴 레깅스 48만1천원
 자형시, 레터링 아이링 27만원 모스카노,
 오른손 중지 착용한 나그렘 스윗 드림즈
 링 50만원테 루이 비통, 왼손에 반지로
 착용한 아이카프 가격 미정 샤카이.

니트 프린지 디테일 블래스터 드레스
 1천500만원대, 실버 디스크 이어링 90만원대
 오른손 검지에 착용한 실버 링 1백20만원대,
 왼손 검지에 착용한 스테이플 링 90만원대,
 실버 브레이슬릿 1백90만원대 모두
보타가 베네다, 플라스 링크 네크리스
 3백99만원 **크롬하츠**, 블랙 니하이 부츠
 2백만원대 **자간비토 로시**.



립 디테일 투락스 스웨터 1백만원대,
 YSL 다이아몬드 브로케이드 소재 미니 쇼츠
 1백만원대, 폭스 퍼슬리브 1백만원대,
 메탈 소재 큰 플라워 체인 벨트 1백만원대,
 부클레 트워드 슬랑백 캠프스 1백만원대,
 타이즈, 브레이슬릿,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생 로랑 바이 안토니 바카렐로, V 로고
 시그니처 이어링 30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블랙 부클레 재킷 4백55만원,
 미니스커트 1백33만원, 블랙 새틴
 브라톱 44만원, 옐로 레오파드
 페이턴트 샌들 98만원 모두
 플래그십가방나, 블랙 픽셀 에니멜 이어링
 가격 미정 **지형시**, 드롭 데일 초커
 네크리스 가격 미정 **사넬**.



클러터 기퍼르 징프 수트,
 샤이니 그라인 카프 스킨 벨트 백,
 심스킨 샤이링 부츠 모두 가격 미정
사넬, 나노그램 스윗 드림즈 이어링
 70만원대 **루이 비통**, 더블 체인 골드
 네크리스 가격 미정 **셀린느**.

헤어 **최은영**
 메이크업 **유해수**
 모델 **김도현(YG K+)**
 에디터 **이주이**
 어시스턴트 **배시현**



통포드 02-6905-3534
 구찌 02-3452-1921
 지형시 02-546-2790
 크롤라츠 02-3443-0055
 팬디 02-514-0652
 MSGM by hanstyle.com 02-3449-5964
 마우미우 02-3218-5331
 생로랑 바이 안토니 바카렐로 02-545-2250
 플래그십가방나 02-3442-6888
 빌렌티노 가리버니 02-2051-4653
 디올 02-3480-0104
 모스키노 02-3448-1340
 샤카이 02-541-7510
 보테가 베네통 02-3438-7601
 지안버토 로시 02-6905-3690
 사넬 080-200-2700, chanel.com
 루이 비통 02-3432-1854
 셀린느 0507-1419-6631



화점 입구정 본점 4층에 위치하며, 랄프 로렌 컬렉션과 더블알엘 단독 매장은 2022년 1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오픈할 예정. 랄프 로렌의 고급도 퀄리티와 깊이 있는 컬러로 전하는 우아함을 직접 즐길 날이 멀지 않았다.

사이즈 코트, 부드러운 캐시미어 스웨터와 니트 소재 조끼 팬츠, 그리고 소프트 셔링 아우터 웨어 같은 럭셔리 스포츠 웨어를 선보여 워킹 라이프뿐 아니라 여가 생활 등 어느 때나 입을 수 있는 다양한 룩을 제안한다.

마의 우아함에 새로운 기준을 부여한 것. 말안장에 달린 등자의 매끄러운 윤곽을 정교하면서도 클래식하고 현대적으로 풀어냈으며 슬더백, 크로스 보디 백, 토트백 등 다양한 컬러와 길이로 제작해 우아함에 실용성과 편안함을 담았다. 퀄리티와 브랜드 헤리티지에서 비롯된 강인함, 그리고 다채로운 컬러 팔레트에서 느낄 수 있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꼭 채운 이번 컬렉션은 가을, 겨울 동안 만나볼 수 있으며, 2022년 1월 새로 오픈하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랄프 로렌 단독 매장에서도 만날 수 있다. 승미에 대한 미스터 로렌의 사랑으로 탄생한 웰링턴 컬렉션은 백만 가지의 변형이 가능한 웨딩턴 컬렉션에 대표되는 웰링턴 컬렉션에 그대로 녹아난다. 랄프 로렌이 지키고자 하는 헤리티지를 고스란히 반영한 승



편안함 속의 럭셔리, 파인 테일러링의 완성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완벽하고 클래식한 수트의 정석을 보여주는 랄프 로렌 퍼플 라벨의 2021 F/W 컬렉션에서 보여준 우아함에 대한 정의는 조금 다르다. "말라노에는 저를 감동시키는 것들이 있죠. 구불구불한 자갈길이 주는 낭만, 오래된 파사드와 철제 발코니에 깃든 짙은 녹색, 숨겨진 안뜰 곳곳에서 발견되는 작은 카페가 주는 기쁨, 하루의 흐름을 알려주는 종소리. (중략) 이것들이 한데 직조되어 이번 컬렉션에 특별한 개성과 우아함, 그리고 정돈된 매력을 불어넣었습니다"라고 랄프 로렌은 이야기한다. 이처럼 이전과 같은 딱딱하고 불편한 클래식함에서 벗어나 우아함을 놓치지 않는 편안한 핏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이는 퍼플 라벨의 강점인 최고급 소재 제조 노하우 덕분에 가능하다. 또 편안함 속 럭셔리를 강조하는 이번 컬렉션에서는 목기적인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울 소재와 텍스처가 돋보이는 오버

강인한 여성이 표현하는 세련미

이번 시즌 랄프 로렌 컬렉션에서 돋보이는 것은 여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사파리에서 영감을 받은 프리플 컬렉션은 부드럽지만 모험적인 여성상을 그려냈으며, 폴 컬렉션에서는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모던한 여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정교한 로맨스를 그렸다. 이처럼 랄프 로렌의 가을 컬렉션에서는 랄프 로렌의 헤리티지를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현대적인 여성상이나 일상 속 편안함 등을 반영해 어려운 시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도 하다. 또 2021 랄프 로렌 가을 컬렉션에서는 현대적인 스포츠 웨어와 헤리티지 수트를 적절하게 조합해 말라노 라이프스타일 특유의 반항적인 무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이번 컬렉션을 대표하는 웰링턴 컬렉션에 그대로 녹아난다. 랄프 로렌이 지키고자 하는 헤리티지를 고스란히 반영한 승

1 클래식하고 우아한 남성복에 편안함을 더한 랄프 로렌 퍼플 라벨 2021 가을 컬렉션. 2 랄프 로렌 리스 프라이빗 이벤트에서 선보인 랄프 로렌 2021 가을 컬렉션. 3 랄프 로렌 퍼플 라벨에서 선보이는 소재의 상. 4 랄프 로렌의 헤리티지를 담은 지탄생한 웰링턴 백. 5 랄프 로렌 리스 이벤트에 참석한 고소영. 웰링턴 백을 잘 소화했다. 6 셀비지 진을 선보인 더블알엘. 7 랄프 로렌 리스 이벤트에 참석한 배우 이재훈. 8 퍼플 라벨 2021 가을 컬렉션. 9 웰링턴 백을 착용한 모습.

We are the One

최상의 퀄리티를 느낄 수 있는 안목 있는 남성을 위한 라인인 랄프 로렌 퍼플 라벨부터 여성복을 위한 랄프 로렌 컬렉션, 쿨하고 거친 매력의 스포츠 웨어 컬렉션으로 이미 수많은 컬렉터의 추종을 받고 있는 더블알엘과 랄프 로렌 워치 앤 파인 주얼리까지. 품질에 대한 자신감 아래 해마다 다른 스타일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랄프 로렌의 패밀리가 한자리에 모였다.

우아한 신사와 강인한 여성의 만남

2021년 11월 2일, 랄프 로렌이 서울옥션 강남 센터에서 진행한 리스 프라이빗 이벤트는 의미가 깊다. 랄프 로렌 리스 라인인 랄프 로렌 퍼플 라벨부터 랄프 로렌 컬렉션, 더블알엘, 그리고 랄프 로렌 워치 앤 파인 주얼리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랄프 로렌 리스 라인의 2021 가을 컬렉션 제품을 주로 선보였다. 랄프 로렌 퍼플 라벨은 미스터 로렌의 스타일 철학을 표현한 컬러 믹스가 돋보였으며, 레더와 스웨이드, 울과 캐시미어, 실크 블렌드같이 퍼플 라벨의 강점인 고급 천연 섬유와 헤리티지 패브릭의 진가를 보여주었다. 랄프 로렌 컬렉션에서는 이번 시즌만큼은 현대적이고 진실한 여성상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프리플 컬렉션에서는 카키·블랙·화이트 컬러 중심의 뉴트리얼 팔레트로 구성된 아이템과 고급스러운 소재로 재탄생한 사파리 재킷 등 강인한 여성이 표현하는 세련미를 강조했으며, 폴 컬렉션에서는 남성복 실루엣에서 영감을 받은 타임리스 데이 드레스, 핸드 니트 스웨터 등을 선보였다. 더불어 워크 웨어와 군용 장비에 뿌리를 둔 셀비지 데님 및 빈티지 의류와 액세서리, 스포츠 웨어가 어우러진 컬렉션인 더블알엘과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이퀘스트리안 주얼리 컬렉션까지, 랄프 로렌에 대한 모든 것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진욱, 이재훈, 빈지노, 고소영, 이숨, 정은채 등 랄프 로렌 리스 라인의 아이탬을 착용한 여러 셀럽들이 참석해 컬렉션 룩의 진면모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여배우들이 착용한 웰링턴 백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웰링턴 백은 랄프 로렌의 가장 아이코닉한 모티브 중 하나인 스티립(stirrup)의 매끄러운 윤곽이 특징으로, 정교하면서도 클래식한 디테일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유일무이한 백이다. 이번 시즌에 특히 웰링턴 백 컬렉션은 다양한 컬러와 길이로 선보이며 실용적이면서도 우아한 스타일로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내에서 유일한 랄프 로렌 퍼플 라벨 매장은 현대백

sponsored by RALPH LAUREN



Ralph Lauren



Sensual Winter

따뜻하고 관능적인 여운을 남기는 남성 니치 향수 6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두 가지 꽃송이와 2개의 꽃병오리로 아름답게 만개한 빛꽃을 표현한 **가든 테이블 크리스탈 플라워 체리블로섬** 14만9천원, **가든에 핀 꽃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가든 테이블 장미선** 2만9천원, 꽃을 한 송이씩 꽃이 테카레이전할 수 있는 트렌드한 감성의 화형 **가든 테이블 데코레이티브 베이스 스몰** 4만9천원, 남미 열대우림의 열중 위기종인 큰초록이코앵우를 재치 있게 생기 남치게 표현한 **크리스탈 아트피크소** 4만5천원, 무광 골드 프레임에 1백 23개의 파스칼 빛을 발하는 크리스탈 로즈 마그노이 센터에 자리한 **가든 테이블 불 오서먼트 로즈** 14만9천원, 순수함의 상징인 목련을 묘사한 **가든 테이블 크리스탈 플라워 매그놀리아** 14만9천원, 로맨틱한 무드의 장미꽃을 섬세하게 표현한 **가든 테이블 크리스탈 플라워 로즈** 14만9천원, 꽃 세 송이를 각각 꽃을 수 있도록 교안한 베셀 트리아가 돋보이는 **가든 테이블 데코레이티브 베이스 라지** 5만9천원, 총 7백32개의 파스텔컬러 파스칼로 두 마리 잉꼬의 생기 넘치는 컬러를 재현한 **장미 비츠 페라릿 컵** 6만9천원 모두 **스외로브스키**, 문의 1522-9065 에디터 **성정민**

다이스앤다가 바닝 바버샵 장식이 반짝 들인들 강렬한 첫 향을 내는 스파이시한 매력을 지닌 이 향수는 1891년 뉴욕주 웨스트 레이크에 있는 칼링 브로소 이 빌딩에서 화제가 발생했을 당시에 떠올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스파이시한, 신. 무로 전파되는 우디 향조에 라인을 더해 사묘한 바이브를 연출한다. 라벤더를 주축으로 한 우아한 플로럴 향조가 이따다 마구마에 가미된 데우. 우일과 바닐라, 건초향이 섬수일한 여운을 남긴다. 50ml 22만9천원, 문의 02-6905-3333

팬탈리온스 로드 조지 라벤더를 중심으로 전파되는 우아한 향조에 량과 통카 빈의 육감적인 향을 더해 근엄한 남자의 이미지를 그린다. 배트 베르와 사뮤드 가 아우라진 그린 노트가 정제해 다다른 향을 보근하게 덮어 향의 여운을 감미롭고 은밀하게 지속시킨다. 75ml 37만원, 문의 080-363-5454

틀 푸드 뷰티 프아이팅 플렌드 에벤 푸에 신성한 나무를 태워 영혼을 정화하는 고대 의식에서 영감을 얻은 향기. 원료 산토를 중심으로 전파되는 우디 향조에 블랙 페퍼, 애플루트와 바이올렛 리프가 신. 무 숨을 거는 듯 따뜻하고 평온한 느낌을 안겨준다. 로즈가 향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에보니 우드로 미루 리드는 스모카한 아미가 관능적인 남성의 이미지를 그린다. 50ml 32만9천원, 문의 02-6971-3211

트루루드 아메리 그린 계열의 감각적이고 서원된 자연의 향을 담은 향수. 로즈 에센스와 아이 비로 0부터 진 플로럴 향조에 블랙 커런트 버드와 이끼 향이 생기를 더하고, 샌들우드와 통카 빈으로 마무리되는 스파이시한 텍스처가 깨끗하고 깔끔한 친분을 남긴다. 100ml 32만원, 문의 02-3449-4523

피롬 드 밀리 페가수스 인스클루시브 피롬 고유하고 자유로운 남성성을 표현한 오리엔탈 우디 계열 계열 향수. 핑크 페퍼와 배르가모트의 조합으로 특. 씩. 씩. 이 향기를 자극하고, 제스민과 라벤더, 아몬드와 샌들 우드가 아우라진 깊고 풍부한 매력을 완성했다. 여기 에 비닐리를 조미료처럼 더해 향을 감미롭고 부드러운 진함을 느낄 수 있다. 125ml 32만9천원, 문의 02-3213-2088 에디터 **이준이**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두 가지 꽃송이와 2개의 꽃병오리로 아름답게 만개한 빛꽃을 표현한 **가든 테이블 크리스탈 플라워 체리블로섬** 14만9천원, **가든에 핀 꽃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가든 테이블 장미선** 2만9천원, 꽃을 한 송이씩 꽃이 테카레이전할 수 있는 트렌드한 감성의 화형 **가든 테이블 데코레이티브 베이스 스몰** 4만9천원, 남미 열대우림의 열중 위기종인 큰초록이코앵우를 재치 있게 생기 남치게 표현한 **크리스탈 아트피크소** 4만5천원, 무광 골드 프레임에 1백 23개의 파스칼 빛을 발하는 크리스탈 로즈 마그노이 센터에 자리한 **가든 테이블 불 오서먼트 로즈** 14만9천원, 순수함의 상징인 목련을 묘사한 **가든 테이블 크리스탈 플라워 매그놀리아** 14만9천원, 로맨틱한 무드의 장미꽃을 섬세하게 표현한 **가든 테이블 크리스탈 플라워 로즈** 14만9천원, 꽃 세 송이를 각각 꽃을 수 있도록 교안한 베셀 트리아가 돋보이는 **가든 테이블 데코레이티브 베이스 라지** 5만9천원, 총 7백32개의 파스텔컬러 파스칼로 두 마리 잉꼬의 생기 넘치는 컬러를 재현한 **장미 비츠 페라릿 컵** 6만9천원 모두 **스외로브스키**, 문의 1522-9065 에디터 **성정민**



crystal moments

● sponsored by SWAROVSKI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집을 아트 갤러리로 만들어줄 스와로브스키의 특별한 홈 크리스탈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for real Man

잘 고른 구두 하나가 남자의 품격과 개성을 완성한다.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알이 날렵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세련미를 더하는 카프 스킨 소재의 슈즈 77만원 **구찌**, 문의 02-3452-1921

발 높이에 따라 끈 조절이 가능한 데비 슈즈. 다리에 글라이드 송아지가죽을 사용해 고급스러운 무드를 선사하며, 심플한 디자인에 토 디테일을 기어부드러운 신사의 느낌을 풍긴다.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545-2250

심각함으로 길게 뻗은 알코가 독특한 옥스퍼드화로 입체적이고 볼드한 아웃솔이 유니크한 매력을 풍기는 베네치아 라다 소재의 슈즈 2백25만원 **벨루티**, 문의 02-547-1895

기본에 충실한 클래식한 디자인과 송아지가죽의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데비 슈즈. 스티치 디테일로 포인트를 주었다. 90만원대 **살버토레 매카모**, 문의 02-3430-7854

동특한 알코가 영하고 키치한 감성을 불어넣는 100% 소가죽 소재의 데비 슈즈 1백49만원 **프라다**, 문의 02-3218-5320

크로커다일 엠보싱 디테일로 장식한 페이퍼트 레더 소재의 웨스턴 스타일 버클 부츠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문의 02-545-2250

알코에 화려한 메달리온을 얹은 브라운 컬러의 소가죽 소재 슈즈. 곳곳에 대한 편칭 디테일이 개성 있는 연출을 돕는다. 1백25만원 **차처스**, 문의 02-3470-1140 **에디터 상영민**

이탈리아 베네토

© sponsored by WILLIAM GRANT & SONS

※ 광고: 자.비.유주는 노.중.가.의.순.상.이.나.차.별.을.유.합.하.나.다. 명.신.중.음.주.는.가.장.이.출.생.위.양.을.보.양.하.나.다.

Crown the Occasion

스코틀랜드 프리미엄 싱글몰트와 프랑스 코냑 캐스트의 황홀한 만남.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새해가 밝았다. 기분 좋은 시작을 위해서는 보다 기쁨 비직인 술이 필요할 테. 글렌피딕 26년 그랑 코론은 그 아말로 이 순간을 위한 위스키다. 가장 본질적이고도 깊고 농익은 풍미를 지닌 26년 싱글몰트 원액을 프랜치 코냑 캐스트에 2년 동안 추가 숙성해 농밀하고 풍부한 표현을 담았다. 글렌피딕 26년 그랑 코론을 입안 가득 머금고 온기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 향을 뿜어내며 남다른 여운을 선사한다. 진중함이 느껴지는 묵직하고 매끄러운 텍스처에서 갖 구운 과일 타르트와 버터 풍미가 가득한 슈 페이스트리, 그리고 코냑 캐스트 숙성에서 비롯된 향신료와 달콤한 카라멜 풍미가 인하여 흑살랑을 곁들인 진한 크림 커피 향까지 느껴지며, 꽤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여운에 절로 찬사가 나온다. 프랑스어로 '왕관'을 뜻하는 코론(couronne) 모티브를 적용한 병마개와 화려하면서도 정교한 팔리그리 문양을 새긴 특별 패키지에 담아 완성했다. 복된 새해를 위한 마음을 담은 특별한 선물용으로도 추천한다. 700ml 1백20만원 대. 문의 02-2152-1600 **에디터 이재영**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리프레이 스킨 캐비아 나이트타임 오일** 독자적인 캐비아 결정체와 레티놀로 피부에 즉각적인 탄력·주름 개선 효과를 선사한다. 텍스처가 무거운 어느 오일과 달리 피부에 바르자마자 빠르게 스며들어 피부결을 매끈하게 정리해준다. 20ml 69만3천원, 문의 02-511-6626

타이트 인퓨즈드 페이스 오일 광택과 생기를 부여하는 정미의 유효 성분을 함유해 피부에 단계적으로 보습과 영양을 공급하는 오일로 병 안에 보이는 정미 알갱이 신선도와 효과를 증명한다. 30ml 8만 9천원, 문의 02-3479-6049

로라 메르시에 나리싱 로즈 오일 즉각적인 수분 공급을 도와주는 프랑스 해수와 비타민 에센셜, 미세입자 성분을 함유한 프렌치 로즈 추출물로 피부에 진정 효과를 부여하고 유·수분 불균형을 해소하는 라치 오일 30ml 9만1천원, 문의 080-564-7700

상타카이 로즈 드 메이 페이스 오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귀한 정미 중 하나인 프랑스 남부 그라스 지방산 5월의 정미 로즈 드 메이를 주성분으로 하며, 로즈 힌, 달맞이꽃 등 자연 유래 재생 성분을 함유해 빠른 흡수력과 효과가 일품이다. 30ml 27만8천원, 문의 02-517-0902

클라린스 블루 오일 트리트먼트 오일 100% 식물 추출 성분으로 구성된 오일로 헤어젤러 에센셜 오일이 수분막을 형성해 피부 수분의 균형을 맞춰주고 건조하고 칙칙한 피부에 자연스러운 생기를 부여한다. 30ml 7만2천원, 문의 080-542-9052

젤랑 아베이 로얄 어드밴스드 유스 워터 오일 저자극성 오일 포몰라와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어 신뜻한 마무리를 돕는 워터 텍스처가 돋보이는 오일. 브랜드만의 노하우를 담은 뛰어난 항산화 효능을 지닌 베타글리세롤로 빠르게 건조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준다. 30ml 14만원, 문의 080-343-9500

에스티 로더 리베라라이징 수프림+ 듀얼 트리트먼트 오일 강력한 멀티 액션 포뮬라에 트리트먼트 에센셜을 다한 오일 제품. 사용 전 가볍게 흡수여주면 오일과 세일이 상어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킨다. 30ml 11만원, 문의 02-6971-3212

샤넬 뷰티 수퍼리미지 텍스투르 자연적인 피부 회복 프로세스를 활성화하는 비닐과 폴리머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성분으로 단 한 방울으로도 피부에 방어막을 씌워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한다. 15ml 6만원, 문의 080-332-2700, www.chanel.com 에디터 **상정민**

fall into Oil

짚어질 듯한 건조함을 해결해줄 오일 하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editor's Pick

매서운 바람에도 최적의 뷰티 컨디션을 유지해줄 아이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뷰티 루주 코코 밤 918 마이 로즈** 발색력이 좋아 립 스틱인 줄 알았는데, 입술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고 뛰어난 보습력까지 발휘하는 컬러 립밤이라고 한다. 기존 컬러 립밤은 번들거림이 심해 기피됐지만, 이 제품은 마치 립스틱처럼 적당한 세미글로 파니시로 마무리되면서 촉촉한 보습 효과를 취 만족스럽다. 3g 4만6천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에디터 **상정민**

구찌 뷰티 팔레트 노베 데 주 콜로랄 세틴, 매트, 메탈릭, 세 가지 서로 다른 텍스처에 12가지 컬러톤을 컬러를 담아내 오라조리 조화로운 여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이 장점 보이는 색상 그대로 발색되어 텍스처에서 극도의 섬세함이 느껴진다. 팔레트 트라이는 탈락 가능해 리필 트라이에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반티지 플러쉬를 새겨 넣은 블랙 팔레트 케이스는 화장대 위 낭만적인 분위기를 부여한다. 0.75g X 12 19만3천원, 문의 080-850-0708 에디터 **이주이**

클라린스 노베 인핸싱 아이 컨투어 크림 수프림 재배부터 추출까지 6년에 걸쳐 완성한 진귀한 아이리스 추출물이 피부 기능 활성화와 재생에 도움을 주는 아이 크림. 텍스처가 매우 리치해 조금만 발라도 영양이 듬뿍 흡수되는 듯한 느낌이다. 피부의 오돌토돌한 부분까지 완화해준다. 15ml 32만원, 문의 080-564-7700 에디터 **장리윤**

바버리 시그니처 칼렉션 앰버 하스 향수 보틀에 달아놓은 가죽 매듭은 장인 장신, 트랜스코트 단추와 동일한 소재로 제작한 검은 브랜드의 유산을 표현한다. 6개의 시그니처 칼렉션 향수 중 앰버 하스는 잘 가문 정돈된 느낌을 결코 아니다. 거칠고 광대한 향이 안개만 꽃, 땅까지가 내릴 무렵 휘날리는 부는 적당히 따뜻한 바람. 그런 느낌을 주는 무상하고 로맨틱한 향이다. 100ml 32만원, 문의 080-850-0708 에디터 **장리윤**

달바 화이트 트러플 더블 세럼 인 크림 수분 보충과 피부 진정 효과를 제공하는 세럼과 영양 및 탄력을 주는 인텐스 크림을 동시에 담은 신박한 제품. 켈리다 세럼은 바르자마자 시원한 느낌을 주어 붙어있는 피부를 즉각 진정시키는 느낌이 들었다. 여기에 화이트 트러플 성분인 든 크림으로 마무리하니 지친 피부가 회복되고 탄이 많아지는 듯하다. 70g 7만8천원, 문의 070-7714-8428 에디터 **상정민**

랑콤 앰슬워 더 세럼 겨울을 제압하고 지속적으로 개화하는 특별한 정미 수백만 송이를 능숙한 세럼, 가볍게 발라도 보습과 흡수감은 쏠쏠한 건조한 겨울에 딱히 알맞은 제품이다. 흡수가 빨라 다음 단계 제품을 바르는 데도 용이하다. 리필도 가능하다. 30ml 42만원, 리필 30ml 36만원, 문의 080-022-3332 에디터 **장리윤**

엘리미스 프로 콜라겐 마린 크림 겨울만 되면 길 잃는 초간장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인 에디터에게 평판이 해피으로 다가온 겨울의 마린 크림. 켈 크림 타입으로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어 말라드는데, 끈적임 없이 기분 좋은 보습을 선사한다. 소량만 발라도 영양감과 수분감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침저녁 꾸준히 바르기를 알주일, 피부 좋아졌다는 말을 여럿에게 들었다. 50ml 15만원, 문의 02-2054-0500 에디터 **이주이**

타미엔코 로즈 골드 오 드 파뮈 허우스의 긍정적이고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담은 아민 향수. 블랙 카렌트를 중심으로 상큼한 리치와 핑크 페퍼 향을 더해 톡톡 타치듯 유쾌한 향기가 가득 느껴진다. 여기에 블루 로즈 어드와 제퍼니즈 로즈가 섬세한 플로럴 향을 이어가며, 암브레트 시드와 수선화가 감미롭고 농익은 분위기를 완성한다. 50ml 13만9천원, 문의 080-850-0708 에디터 **이주이**

마리엔 메이 사카 어센츠 티트리 카밍 마스크 하루에 1장씩 뽀아 쓰는 마스크 팩.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병을, 아성초, 티트리 추출물을 듬뿍 담았다. 울긋불긋 자극받은 피부를 위한 응급 처치 아이템으로 제격이다. 파우더, 인공향, 에탄올, 계면활성제 등 167가지 유해 성분을 넣지 않아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 30매 2만2천9백원, 문의 031-523-9023 에디터 **이주이**

에스티 로더 퓨처리스트 아쿠아 브라이트니스™ 파운데이션 SPF 20 PA+++ 가볍고 알기 발려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도와주는 겨울 파운데이션으로 촉촉한 보습과 은은한 윤광 표현이 일품이다. 커버력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 번 레이어해도 뽀아 없이 매끈하게 표현되어 커버 강도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 30ml 9만원, 문의 02-6971-3212 에디터 **상정민**

엑스니hil로 플로르 니르코티크 바디 워시 리샤리 프렌치 파퓰 브랜드에서 출시한 보디 제품인 만큼 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샤워 후에도 촉촉함이 남아 건조함이 심한 겨울에 사용하기 안심됐음. 평소 향수보다 향이 있는 보디 크림이나 워시를 사용해 완성되는 자연스러운 산성도를 추구하는 편이라 향과 사용감 모두 매우 만족스럽다. 200ml 7만원, 문의 02-6905-3353 에디터 **상정민**

라부르렛 프라그런스 테크 비스투 스키펴 진통 사후나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향기를 작은 케이스에 담았다. 열기 가득한 수분, 삼나무 벚, 자작나무 잎 향이 섞여 스텔라를 날려준다. 여행 가방에 꼭 넣을 수 있는 작은 사이즈라 더 마음에 든다. 14g 3만3천원, 문의 1644-4490 에디터 **장리윤**

다올 포에버 구워워 쿼선 - 뉴 룩 리미티드 에디션 #1N 밀착력, 지속력, 수분감,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아이템. 내추럴 메이크업을 했을 때 특히 빛을 발하는데, 소량 묻혀 톡톡 짚어 버리면 안색이 더 신선도 자연스러운 피부 톤을 연출해준다. 허우스의 상징적인 하운즈투스 패턴을 입은 우아한 한정판 패키지는 소장 욕구까지 자극한다. 14g 9만2천원, 문의 080-342-9500 에디터 **이주이**



SHOWROOM

FASHION

브리오니 한국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현대적이면서 도 장인 정신과 자연, 전통이 공존하는 특별한 도시,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영감을 얻은 천연 소재에 이탈리아 이브루초주의 전통 수공 방식으로 제작한 레더 블루종, 터틀넥 니트, 조거 팬츠 등 총 67지 에디션으로 구성했다. 갤러리아 명품관, 서울신라호텔 등 브리오니 부티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274-6483

펜디 콤팩트 컬렉션 올해 디자인 마이메이를 맞이해 펜디에서는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기구 및 액세서리 브랜드 마베오와 손잡고 제품을 선보였다. 10점의 기구로 구성된 특별한 컬렉션을 통해 하나의 오브제 작품 같은 스톤과 펜디의 FF 로고를 더한 디자인의 기구, 실용성까지 갖춘 의자 등 작품 같은 기구들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14-0652



발렌티노

펜디

브리오니

MCM

몰탈랑

빅토리우스

실론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바세로

자칭시 뷰티

사일 뷰티

보아네

에르메스

프레이드

ALEX KAT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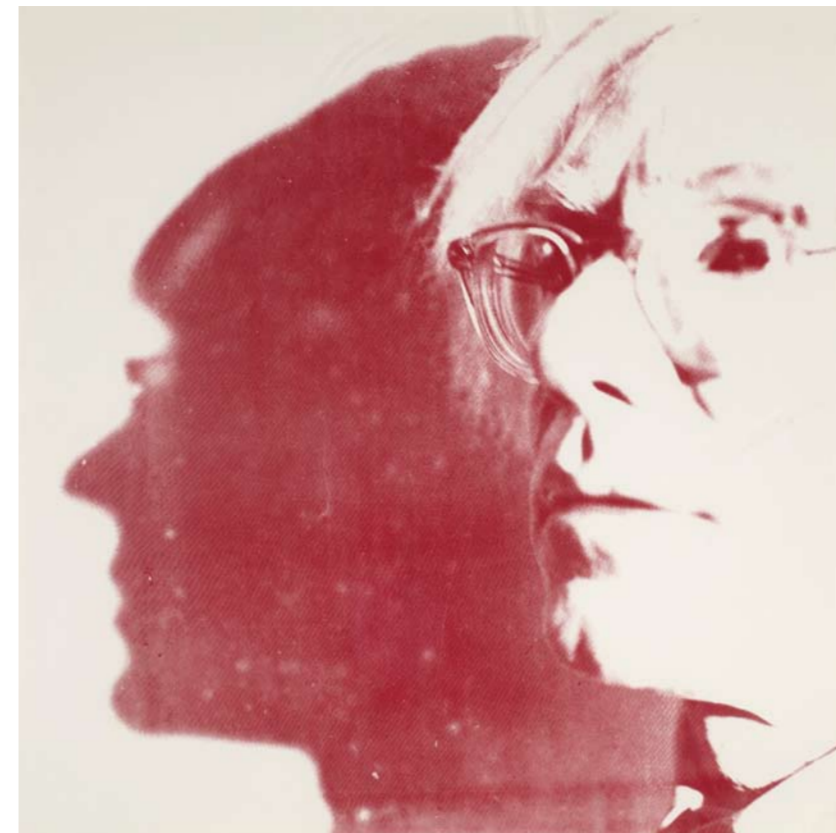


타타루스 로퍼 서울에서 선보인 신작 일점모자 3 작업 중의 일점스 키트(2021).
Photo ©Juan Eduardo Courtesy Thaddeus Ropac gallery | London · Paris · Salzburg · Seoul



SELF-PORTRAIT IN A FLIGHT SUIT(1996),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10.8 X 8.5cm,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컬렉션(Courtesy of Fondation Louis Vuitton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Visual Arts, Inc. Licensed by Adgip, Paris 2021 Photo credits ©Primea / Louis Bourjac

ANDY WARHOL



THE SHADOW(1981), 유자점 보드에 실크스크린/Silkscreen on museum board, 102.5 X 102.5cm, Photo ©Primea/Louis Bourjac



SELF-PORTRAIT(1978), 캔버스에 아크릴과 실크스크린/Acrylic paint and silkscreen ink on canvas, 203 X 203cm, Photo ©Fondation Louis Vuitton/Martin Argryrog

Portraits of Our Times

CHOI WOOK-KYUNG



자화상머핀 모자 쓴 소녀(1997), 종이에 피스텔, 61 X 40cm, 개인 소장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 인물을 표현한다는 것, 즉 누군가를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텍스투로 풀어내는 것에는 어떤 의도가 담길까? 예술과 상업의 영역에서 인물을 다룬 역사는 길고, 지금도 온갖 얼굴로 넘쳐나는 이미지 과잉 시대는 이어지고 있다. 초상을 빛에 내리는 동기도 그만큼 다양하다. 미모나 개성, 신분, 권위 등을 나타내는 개인의 초상일 수도, 현 사회상을 반영하는 집단적 군상에 대한 기억을 남기는 기록의 초상일 수도, 내면적 진실을 끌어내고 담아보려는 심리적 초상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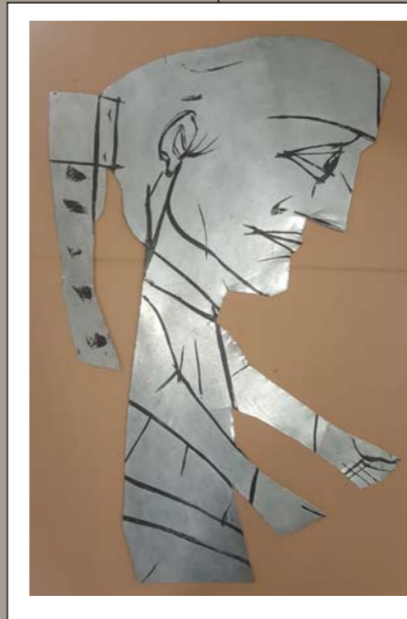
●● 무엇이 됐든 초상의 근저에는 원가를 고정해버리는 속성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초상(portrait)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발견하다, 고정하다', '발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protahere'에서 유래했듯이 말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진짜(authentic) 모습을 발견하는 일이 애초에 가능한 것일까? 언제부터 과하다 싶을 만큼 이용되는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원래 예술 작품을 가리킬 때 모사품이나 복제품이 아닌 진짜라는 맥락에서 쓰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진짜는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자아에는 여러 모습이 있는 법이고, ऐ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인간이 쓴 자전이 반드시 가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 소설가이자 미술 비평가 존 버거는 예술가에게 진실이란 가변적인 것으로, 그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비관론의 특정한 방식이라고 했다. 보는 이들도 저마다 바라보는 방식이 있기에, 예술가의 초상이 내게 간다고 생각하는 대화에 대한 반응도 찬란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건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게 아닐까? 나 자신의 지화상이든 누군가의 초상이든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관심은 곧 애너지이고 어쩌면 애정일 테니까. '이웃을 사랑 하는 것은 창의적인 집중력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비범함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시몬 베유의 생각과 비슷한 맥락에서 말이다. (스타일조선의 지상(紙上) 갤러리에 등장하는 다양한 스타일의 초상을 바라보는 필자들의 저마다 다른 시선에서도 그러한 애정 어린 집중력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글 · 기획 조성연



ANNE COLL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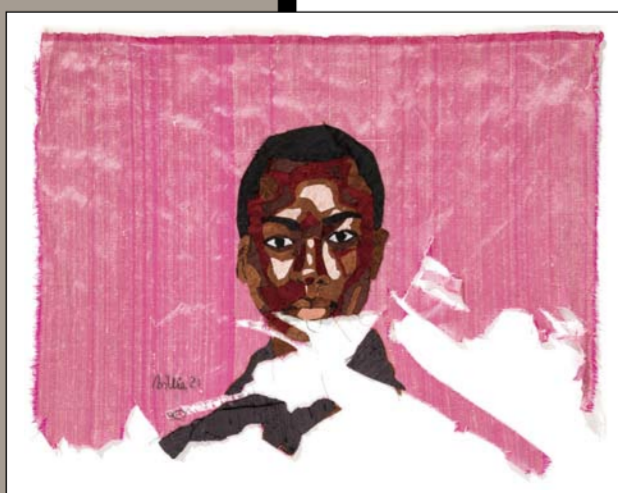
자신의 작업을 실패하는 작가(앤 콜리어의 닷모습, 이미지 제공: 작가)



FLORIN MITROI

Untitled(2000), Zinc plate, 103.5 X 64cm
Courtesy The Estate of Florin Mitroi and Esther Schipper, Berlin

BILLIE ZANGEWA



'Family Ties'(detail, 2021), hand-stitched silk collage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the artist and Lehmann Maupf, New York, Hong Kong, Seoul, and London

앤디 워홀 Andy Warhol

무가치의 예술

● 앤드루 워홀라(Andrew Warhola Jr., 1928~1987)는 미술 애호가들에게 낯선 이름이다. 앤디 워홀의 본명이라고 하면, 그제야 잘인다는 표정으로 안도한다. 실제 인물 앤드루 워홀라보다 실제 같은 앤디 워홀은 워홀라가 만든 애반 하이퍼리얼리티 이미지다. 현재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에서 진행 중인 전시 <앤디 워홀: 앤디를 찾아서(Andy Warhol: Looking for Andy)>(2021. 10. 1~2022. 2. 6)의 지화상처럼 워홀의 작업 공간인 '팩토리'에서 만들어진 이미지 그 자체가 워홀이다. 그는 여러 인터뷰와 저서 <앤디 워홀의 철학(The Philosophy of Andy Warhol)>에서 자신에 대해 알고 싶다면 '직업에서 드러나는 걸 보면 되고,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왜 이처럼 친숙한 앤디를 또 찾으려는 것일까? 우리는 또다시 앤드루를 찾고 있는 게 아닐까?'

●● 후기 자본주의에서는 소용 가치가 아니라 기호 가치를 소비한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음에도 소비는 지속되고 있다. 이를 영속화하는 최대 동력은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광고다. 워홀 역시 광고 분야에서 먼저 인정받아 그래픽 디자이너로 성공했고 <보그>, <허퍼스 바자> 등 유명 잡지사의 일을 맡았으며, 상업 디자인 상을 받기도 했다. 그의 최고작도 대부분 매스미디어와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그는 영화, 텔레비전을 비롯한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광고 스타일을 미술에 도입했다. 소비자가 기호가 아니라 루이 비통이라는 고상한 이미지를 착용하고, 자동차가 아니라 벤츠라는 사회적 지위의 이미지를 소유한다는 것을 일찍 간파했기 때문이다. 워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활발해 진 이러한 흐름을 실제 캠페인 수프 캔(1962년 당시 20센트에는 없는 하이퍼리얼리티 이미지) 캠페인 수프 캔 32점, 당시 각각 1백 달러로 제작하며 시화하기 시작했다.

●●● 소비사회 이론으로 유명한 장 보드리야르는 '그 신화와 구조를 적, 무리하게 보여준 워홀을 가장 좋아한다. 보드리야르는 이미지에 관한 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술은 더 이상 근본적인 기능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발터 벤야민이 말한 예술의 '제1차' 상실과 더불어 현재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한 '제2차' 상실도 추가된다. 보드리야르는 워홀의 작업을 포함해 '현대 예술의 모든 이증성은 무가치(nullité), 무상함(insignificance), 무의미(non-sens)를 요구한다'고 말한다. '가치'라는 무거운 윤리적 코드에 짓눌리면서도 그 관습을 벗어나려 하지 못하는 예술로부터 다다는 이를 해체했고, 워홀은 거기에 '무가치'를 도입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무가치'에 다시 가치를 덧씌우고 있고, 앤디가 아니라 앤드루를 찾고 있다. 글 · 심은옥(한국대 겸임 교수 · 리움·심은옥 미술연구소 소장)



<앤디 워홀: 앤디를 찾아서(Andy Warhol: Looking for Andy)>,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 전시 모습(2021). Exhibition view at Espace Louis Vuitton Seoul (2021)
SELF-PORTRAIT(1967), 캔버스에 아크릴과 실크스크린/Acrylic paint and silkscreen ink on canvas, 182.9 X 182.9 cm
SELF-PORTRAIT(1986), 캔버스에 아크릴과 실크스크린/Acrylic paint and silkscreen ink on canvas, 274.3 X 274.3 cm Photo ©Kwa Yung Lee / Louis Vuitton

이미지 제공: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컬렉션(Courtesy of Fondation Louis Vuitton)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Visual Arts, Inc. Licensed by Adgip, Paris 2021



타데우스 로파키 서울에서 현대 진행 중인 알렉스 카츠 개인전 (Flowers)에서 선보인 신작 초상화 일점 모자 (2021), Oil on linen, 243.8 X 213.4cm, Photo © Paul Takeuchi 전시는 오는 2월 5일까지, 율해 뉴욕 구역 881 미술관 회고전을 앞둔 작가의 작업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다.

알렉스 카츠 Alex Katz

삶 속에 표류하는 작은 부분에 몰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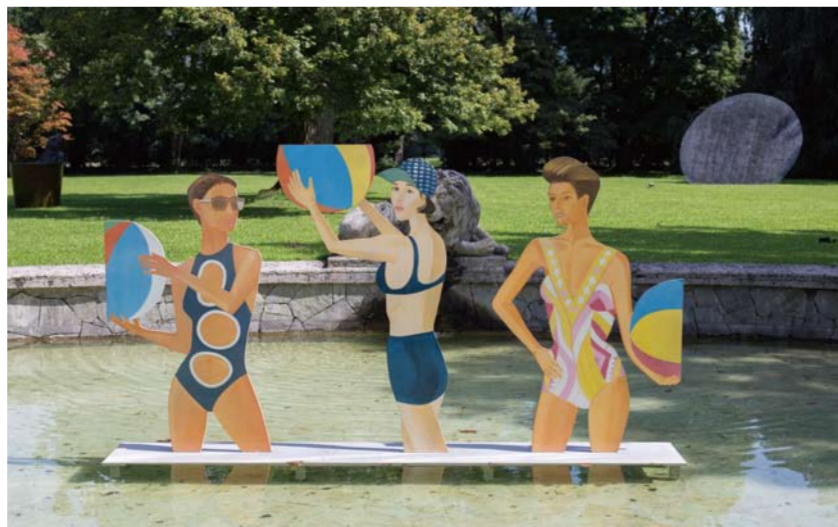
● 인물화(portrait)의 어원은 13세기 프랑스 고어 'portret'. 그리거나 묘사한다는 뜻의 'portraire'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다. 원래 인물화는 권위의 표현이었는데, 13세기 유럽 화가들은 관상의 대상을 기독교 도상인 성상화(聖像畫, icon)에서 살아 있는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나 성모상, 기독교의 성인 등 종교적 인물을 그린 성상화는 정확한 묘사보다 마음에서 우러난 경배심을 어떻게 담아낼지에 집중했다. 이후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정확한 묘사가 화가의 일급 과제가 되었다. 주 대상은 왕족, 귀족, 특권층이었고, 표정, 제스처, 손짓, 배경, 메사지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관념(idea)에서 사실(reality)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유포와 형식이 태어났다. 그러나 화가들이 인물화를 다룰 때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인물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다.

●● 20세기는 모더니즘의 세기였다. 모더니즘 회화는 사실(事實)의 재현으로부터 회화의 본질(本質)이 무엇인지 탐험하는 과정으로 관상의 방향을 바꾼다. 외부 세계를 묘사하거나 마음속에 떠오른 형상을 나타낼 때도 그림이라는 매체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사유해 완성했다. 따라서 1960년대까지 세계 미술은 추상미술이 주류로 자리 잡게 된다. 알렉스 카츠(1927~)는 이때 다시 인물화를 내세운 영웅이 자 전살이다. 온화한 미국 동부의 아이올을 탐사하면서 사람들과 꽃, 나무 등을 묘사했다. 윌트넷(wet-to-wet) 기법으로 물감이 채 마르기 전 화면을 습윤(溼潤)하게 처리하면서 미국인들의 일상을 그렸다. 가족과 친척들 그림의 대상으로 삼은 가운데 변치않은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경탄의 마음이다. 작가의 경이로운 화면에서 주위의 모든 인물들은 아름다움으로 재탄생된다. 화면이 평면적이면서도 발랄하고 온화한 분위기는 자유로우면서도 절도 있는 미국인들의 마음을 성공적으로 묘사했다.

●●● 가장 미국적인 회화를 구축한 카츠 작품의 특성은 1976년 완성된 말을 탄 진(Jean on Horse)이라는 작품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호수와 하늘은 맞닿아 있으며 푸른 들판을 가니는 말 위에 올라탄 카츠라는 여성은 창바와 흰색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다. 이토록 단순하게 절제된 화면에서 자유롭고 가칠 것 없던 한양이 사람 좋은 한 인물의 영혼을 모두 표현했다. 옛 인물화에서도 말 위의 인물을 묘사하곤 했다. 그런데 그 주제가 권위였다면, 카츠가 그린 것은 무한한 자유와 공평무사의 평등이다. '컷아웃(cut-out)' 시리즈도 그의 인물화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다. 스테인리스 강판에 에나멜로 인물을 그리고 인물의 형상대로 강판을 오려내 삶배나 실오에 설치하는데, 이 시리즈로 카츠는 회화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2016년에 완성한 '찬스(Chance)'라는 작품을 보자. 수영복을 입은 세 여성이 물놀이 공간을 들고 노니는데, 각자 독립된 채 자타의 아름다움을 한껏 발산한다. 이들은 화사하되 사치스럽지 않고 당당하되 분위기를 깨지 않는다. 실제 물놀이장에 설치되어 회화 속 인물들이 사실과 가상의 경계를 시련히 넘나든다. 글 이진영(미술 비평·미학·동양학)



Jean on Horse(1976), Oil on linen, 75 X 120inches © Alex Katz



Chance(2016), Porcelain enamel on steel, 77 1/4 X 142 X 15 3/4inches © Alex Katz

0104 | 188 | Courtesy, Thaddaeus Ropac gallery | London · Paris · Salzburg · Seoul



5.X.1985 (1985), India ink on paper, 35.4 X 24.7cm (unframed), Photo © Andrea Rossetti



Untitled, India ink on paper, 35.2 X 25.1cm (unframed), Photo © Jens Zehe

플로린 미트로이 Florin Mitroi

'빛'으로 억압에 맞선 은둔형 화가

● 루마니아 작가 플로린 미트로이(1938~2002)는 1961년 부쿠레슈티 예술 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조교수로 임용됐다. 온화하고 겸손했던 미트로이는 당시 지배적이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꼭 들어맞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아량이 크지 않았던 그는 루마니아 공산당에 입당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의 경력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끝났다. 1960년대 중반, 루마니아 예술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떨어져 나갔고, 곧 지역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서구 개방 흐름을 감작시켜 막아프리게 됐다. 이 혁신은 국수주의적 문화 부흥을 일으키기도 했다. 예술가들은 반드시 새로운 양식을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해야 했다. 하지만 미트로이는 당시 존재했던 신비리키르와 공산주의풍 중 하나를 받아들이는 타협을 하지 않았다.

●● 1974년, 인생 대부분을 작은 작업실에서 보낸 그는 상식적인 모더니즘을 버리고 오랫동안 잊었던 전통 기법인 7분의 템페라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손수 준비한 나무, 유리, 캔버스, 종이에 손으로 혼합한 색소를 얹었다. 탄탄하고 정교하지만 공허한 작품에서 그는 무수사한 고통처럼 여겨지는 자살 행위, 유행이라고 여겨진 에로티시즘 등을 무차별하게 묘사하기 시작했다. (사후에 발견된) 7천3백여 점에 이르는 미트로이의 작품은 그의 위대한 상상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절묘한 슬픔에 메스를 대듯, 각 작품에서는 기쁨, 비극, 예술적 완벽에 대한 황홀한 갈망이 묻어났다. 전사나 판매에는 관심이 없었던 미트로이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작업했다(생전의 개인전은 1993년 열린 전사가 유일했다). 당시 정권이 통제하는 예술에서 색스뿐만 아니라 죽음도 완전히 금기시하는 주제였다.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의 비밀스러운 작품은 루마니아 전후 예술의 중요한 작품으로 여겨졌다.

●●● 미트로이의 초상화는 정면 또는 측면을 그린 여성과 남성의 형상을 보여준다. 이 초상화들은 같은 시기에 제작한 작가의 사진 작업을 반영하는데, 대개 루마니아 시골에서 찍은 두건을 쓴 나이 든 여성들의 흑백사진 등을 묘사한다. 짙은 단색 배경 위에 드러난 강렬한 검은 선이 개개인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한다. 이 식탁한 검은 윤곽을 만들어 내는 붓질은 독일 표현주의를 연상시키는 반면 상반선만 드러낸 인물들의 자세와 표정은 종교적 모티프, 전통문화 요소 등을 갖췄다. 단조로운 배경에 공허한 표정을 한 눈 큰 인물의 시니컬한 표정은 신비로워 보인다. 미트로이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 속 숨겨진 진실의 이면에 주목했다. 글 에르빈 케슬러(Erwin Kessler, 미술 사학자)



22.III.1994 (1994), Tempera on paper, 92 X 65cm (unframed), Photo © Sang Tae Kim



Portrait with Burgundy Background (1986), Tempera on plywood, 46 X 38cm (unframed), Photo © Alexandru Paul



The Pleasure of a Child(2021), Hand-stitched silk collage, 111 X 152cm.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기반으로 활동하는 빌리 장게와의 실크 콜라주 작품. 작가의 개인전 《흐르는 물(Running Water)》과 《살육(Flesh and Blood)》이 리안아민 런던과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서울 전시는 1월 15일~7까지.

Loving Eyes(2021), Hand-stitched silk collage, 153 X 50cm



OPPIA | 1000 Courtesy of the artist and Lehmann Maupin, New York, Hong Kong, Seoul, and London

— 빌리 장게와 Billie Zangewa

콜라주가 엮어내는 영혼의 공간대

- 상세한 손바느질로 엮은 실크 천 조각으로 이뤄진 빌리 장게와(1973~)의 유아한 콜라주는 인기 지 않을 만큼 로맨틱하다.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조형적으로 구성한 그의 작업에는 노동과 놀이, 일과 여가의 경계가 흐릿하게 느껴지는 일상의 풍경이 담겨 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상태에 꼭 들어맞는 것이기도 하다. 장게와는 민물을 관통하는 '상호 연계성(interconnectedness)'이라는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다양한 측면을 포용함으로써 자신의 작업을 떠받치는 힘과 목적의식을 얻었다. 작가 개인 의 우선순위는 모성, 가족, 집, 자유, 마음의 평화와 같은 소재 선택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 장게와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관료에게서 여타한 빈층이나 동등도 바라지 않은 채 자신의 삶에 오롯이 몰두하고 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보다 단단한 내면의 힘을 갖게 된 작가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반영한다. 이 같은 변화는 작품 속 인물의 배치와 그들의 몸짓에서도 나타난다. 장게와가 담아내는 (천 캔버스 속) 인물들은 어떠한 연기도 하지 않는다. 관료는 그저 그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창을 제공만을 뿐이다.
- 장게와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영감 넘치는 방식으로 재봉을 하는 아프리카 남부 국가 보츠와나(Botswana)의 여성들 사이에서 성장했다. 이 여성들의 바느질 작업은 삶과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근간임에도 때때로 걸으려는 잘 드러나지 않는 비가시적 노동에 대한 물리적 증거가 되었다. 이 같은 아린 시절의 경험은 장게와의 마음속에 줄곧 머물러왔다. 작가는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뒷받침하는 동력이라면, 자주 간과되고 경시되거나 무시되곤 하는 여성의 일을 표현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고차에서 빨아낸 생사(生絲)로 만든 천과 비늘땀, 해진 천 조각처럼 같은 요소는 모두 이러한 상징성을 강화하며, 항상 해낼 일이 더 남아 있다는 느낌을 증폭시킨다. 글 맥스터 윌버리(Dexter Wimberly, 독립 큐레이터)



In Times of Trouble(2021), Hand-stitched silk collage, 136 X 26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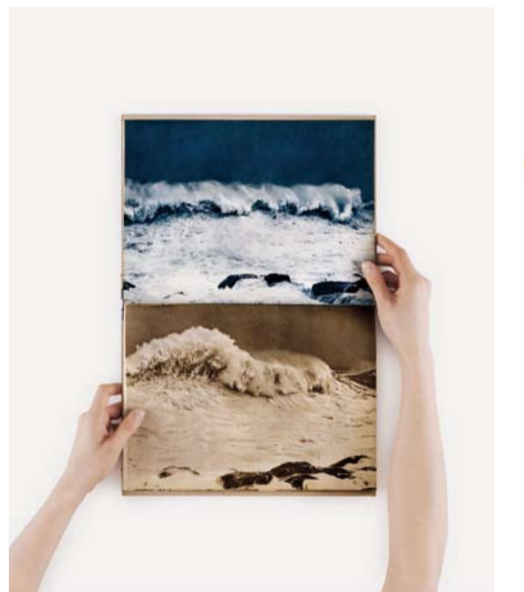


자혜 갤러리비톤에서 한국 첫 개인전(2021년 11월 19일~12월 23일)을 가진 사진작가 앤 콜리어의 전시 풍경. 작가의 신작 'Woman Crying(Comic)' 작품들(왼쪽 #35, 오른쪽 #34)이 보인다. Photo by Jeon Byung Cheol

— 앤 콜리어 Anne Collier

극단적 클로즈업이 빛어내는 '간장'의 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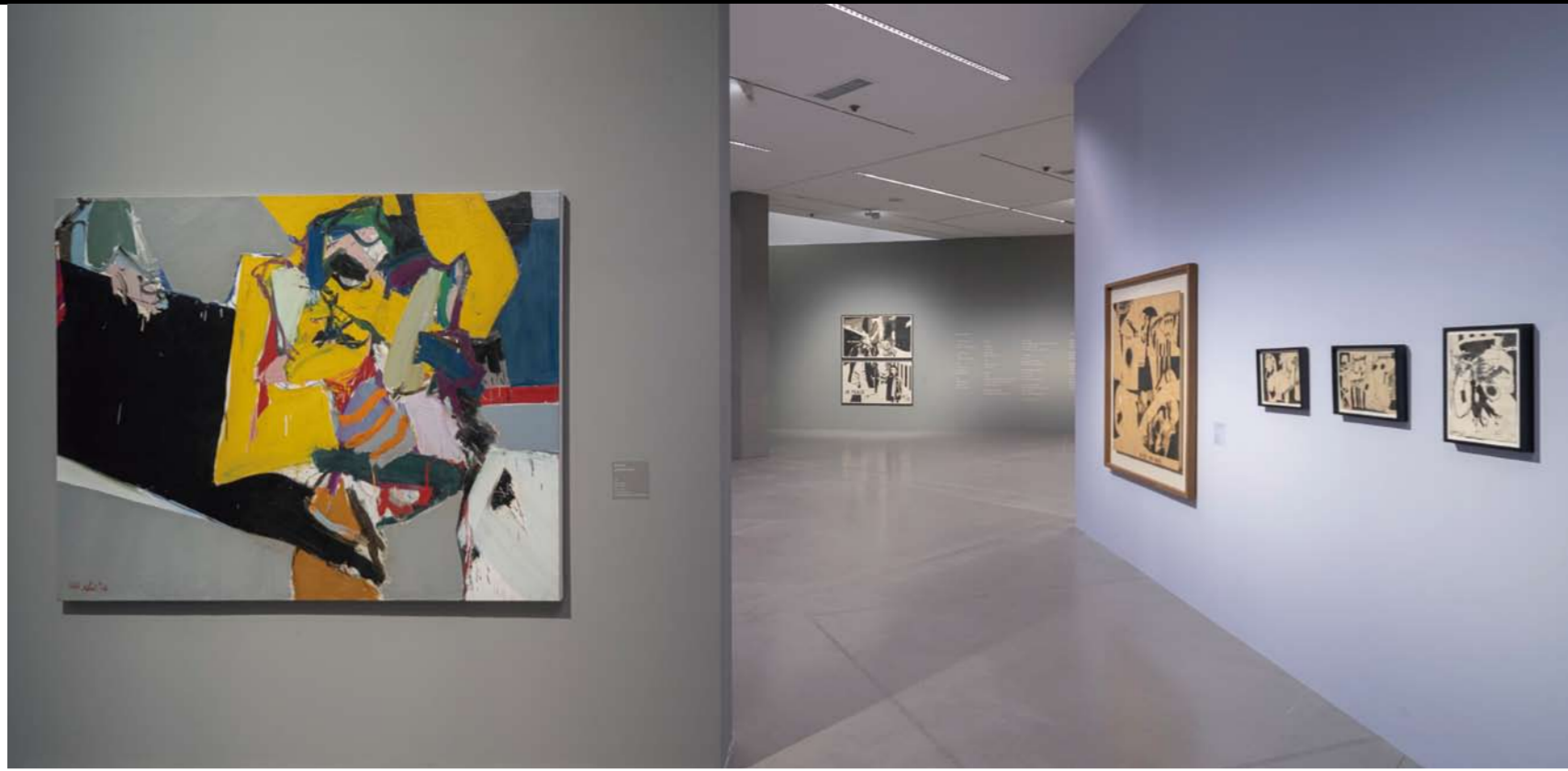
-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아날로그 사진 촬영 과정과 제작 과정을 꾸준히 탐구해온 작가 앤 콜리어(1970~). 그녀의 초상 작업은 수많은 미디어를 응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기억, 상실, 우울 같은 감정을 내포하는 다양한 미디어(미국 빈티지 로렌스 코믹 북, 영화 포스터 등)의 이미지를 본인만의 시선으로 다시 촬영하는데, 그 위에 컬러 필터를 덧씌우고 이미지 주위로 프레임용 조성을 하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업해 온다. 대체로 격양된 감정을 묘사하는 원본 이미지와 작가가 차용한 이미지 간에는 끊임없는 긴장이 조성된다. 이렇게 앤 콜리어 식의 재미난 초상이 탄생하는데, 말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묘하게 매력적이다.
- 현재 갤러리비톤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 첫 개인전을 비롯해 작가가 수년간 지속해온 시리즈 작업을 보면 언뜻 패턴이즘이나 특정 사조에 의미를 부여하기 쉬운 법이다. 눈물을 흘리는 여성 같은 인화 캐릭터를 차용한 팝아트의 진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초기 작업을 의식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성장기인 1970년대는 전더 이슈에 민감한 시기이기도 했고 말이다. 그러나 작가의 시선은 그보다 한 발자국 떨어진 위트 혹은 공명감과 맞닿아 있다. 예컨대 빈티지 코믹 북스에 자주 등장했던 '여자의 눈물'에 담긴 감정이 전혀 다른 맥락이나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일지 궁금했던 그녀는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기도 한 'Woman Crying'과 'Tear' 연작을 제작하게 됐다. "전더가 작품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그 주체에 매몰되기 보다 단지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사실 그런 이미지들이 공허하게 소비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 이미지들을 현재 시점으로 가져오고 싶었죠'" 라고 서울에서 만난 작가는 설명했다.
- 여자들의 다양한 얼굴, 눈을 모티브로 담은 구체적인 이미지는 그녀의 사선에 의해, 극단적인 클로즈업을 통해 마치 추상화처럼 변한다. 작품을 응시하다 보면 대상의 윤곽, 눈썹, 속눈썹의 디테일을 넘어 어느 순간 마치 평행 세계처럼 아득해져 시공간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눈물이 가득 찬 여성의 눈을 극도로 확대하고, 이로부터 이미지를 분리했으며, 각각의 눈물을 그래픽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했다. 레이 존슨이 '우편아트'라는 장르를 창시하며 40년간 거의 매일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냈듯, 앤 콜리어도 오랫동안 여성들의 눈을 훑어보고 있었던 것 같다(실제로 작가의 대표작 중 한쪽 눈을 감은 채 사진을 찍는 여자를 촬영한 'Women with Cameras' 같은 시리즈도 있다). 글 김수진(디블렌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Open Book (Waves)' 2(2016), C-Print, 143.3 X 126.2cm



자혜 갤러리비톤에서 펼쳐진 앤 콜리어 개인전에서 선보인 '필터' 시리즈 신작. 로렌스 코믹 북에 등장하는 심란한 상태의 여성 이미지를 확대한 뒤 코닥 컬러 프린트 뷰잉 필터를 덧씌우고 빈틈없는 이미지 주위로 일련의 프레임용 조성을 완성한 연작이다. Photo by Jeon Byung Cheol



현재 국립현대미술관(MMCA) 관에서 열리고 있는 최욱경의 대규모 회고전 <최욱경, 앨리스의 고양이> 전시 풍경. 미술품작을 포함해 작품과 자료 2백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2월 13일까지.

최욱경 Choi, Wook-kyung

자유를 향해 모험을 떠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1940년 서울에서 태어난 최욱경(1940~1985)은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한 뒤 1963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크랜북 미술 아카데미와 브루클린 미술관 미술학교 등에서 수학한 다음 1968년 뉴햄프셔에 위치한 프랭클린 피어스 대학의 조교수로 임용되면서 화가이자 미술 교육자로서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추상표현주의 미술의 영향을 받은 작가 혹은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추상미술가로 주로 소개되어왔지만, 사실 최욱경은 추상에 대한 대체로운 실험을 거듭하면서도 구상적인 작업 역시 지속적으로 해온 작가다. 구상 작업의 기초가 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이었다.

●● 최욱경의 자화상은 자신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듯 그린 작품부터 재료의 사용과 기법적 실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띤다. 나는 세 개의 눈을 가졌다(1966)는 종이를 잘라 붙이는 콜라주 기법으로 제작한 작품인데, 본인의 영문 이름과 나는 세 개의 눈을 가졌다(3 Eyes I Do Have)라는 영문 텍스트를 도입한 점 등에서 1960년대 중엽 최욱경이 시도했던 재료와 기법적 실험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기의 대표작이다. 동시에 이 작품은 아사히 여성이라는 소수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세 개의 눈을 가진 것과 닮았다는 이질적인 존재로 표현한 점에서 미국 체류 시기의 최욱경을 가장 잘 포착한 자화상으로도 볼 수 있다. 자신의 얼굴을 사실적으로 그린 자화상 중에서는 초상 사진들이 이어 붙이거나 여러 각도에서 본 자신의 모습을 함께 그린 경우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여러 얼굴을 한 화면에 그린 자화상이 인상적이다. 자화상 연작-계속되는 나와 나의 생각들(1976)은 어린 시절의 모습부터 이 작품을 제작한 1976년까지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연속해서 그린 작품이다. 당시 자신의 생각을 일기 쓰듯 자화상 옆에 써 내려간 독특한 형식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작품들은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지역을 오가면서 화가이자 미술 교육자, 시인이 되는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채 활동했던 최욱경의 복합적인 모습을 반영하는 듯하다.

●●● 최욱경에게 자화상은 전사용 작품이 아니라 그는 그가 시를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던 것처럼, 그 시기의 자신을 시각적으로 포착해 기록하는 수단에 가까웠다. 자화상을 주로 제작한 1960~70년대에 그는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로, 미국에서는 아사히 출신의 외국인이자 여성 작가라는 특정한 정체성으로 규정됐다. 그가 다수의 자화상을 그린 것은 어쩌면 자신을 평가하는 여러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바라본 본인의 모습을 그리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자화상은 최욱경을 비롯한 과거의 시선을 벗어나 작가 자신의 시점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그를 바라볼 기회를 제공할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글 **최욱경**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부



나는 세 개의 눈을 가졌다(1966), 종이 매 그래픽 인크, 105 X 105.5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자화상 연작-계속되는 나와 나의 생각들(1976), 모노종이에 연필, 200 X 91cm, 무자본 산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부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 작가展

‘권력화’된 미디어의 약속, 그 ‘이후’를 말한다

백남준은 관객, 그러니까 못 사람들의 ‘참여’를 통한 지구촌 실현의 꿈을 꿔고, 그도구로 비디오를 꺼내 들었다. 그러한 실험 정신을 계승하는 인도 뭍바이 기반의 협업 스튜디오 그룹 캠프(CAMP)는 오늘날 모두가 미디어의 뒷발을 노리는 듯한 네트워크 시대가 펼쳐지고 있지만, 사실은 거대한 미디어 인프라가 우리 삶과 가치 체계를 빈틈없이 포착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진실’에 눈감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CCTV 카메라로 새로운 예술 매체의 가능성을 꾸준히 실험해온 캠프는 기술을 직접 몸으로 부딪혀 다루면서 개입하고 전복하며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나간다. 매체 기술이 약속했던 허탈한 전망에 맞서 그 ‘이후’를 제안하는 캠프의 전시는 우리 지구촌 시민들의 다양한 힘을 모아 미디어의 문턱을 낮춰 진정한 ‘공유’를 꾀하자고 말한다.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오는 2월 27일까지.

1965년 백남준은 아무런 영상도 나오지 않고 1시간 내내 해안 화면만 등장하는 영화 <Zen for Film>을 발표했다. 음악에 소리가 아닌 침묵을 포함시킨 존 케이지의 4분 33초(1952)처럼 공허함으로 이미지를 채운 이 작품은 ‘反영화’라고 불려도 무방할 것이다. 스크린에 빛을 투사해 생성된 이미지는 언저, 클립 등의 누적된 결과물에 의해 변화하지만, 결국 비어 있는 화면은 동일하다. 이렇게 채워진 시간은 곧 혼란으로 기록해준다. 소리와 영상을 수동적으로 수용해왔던 안에게 스스로 내면의 이미지를 불러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남준이 1960년대 페쇄화로 텔레비전(CCTV)을 예술 매체로 작업한 지 6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오늘날 미디어 환경은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와 비디오, 인터넷, 교통과 교역에 이르기까지 다변화되었다. 관객의 참여와 창조를 중요시했던 그의 철학은 다른 작가들을 통해 어디까지 확장되어왔을까?

백남준의 ‘참여’를 넘어, 캠프의 ‘공유’ 개념으로

백남준이 예술 매체로 개척한 CCTV 카메라로 새로운 영화 만들기를 실험하는 캠프(CAMP)는 그의 계보를 잇는 강력한 아티스트 그룹 중 하나일 것이다. 2020년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 작가인 캠프는 인도 뭍바이에 기반을 둔 협업 스튜디오로 샤이나 아난드(Shaina Anand)와 아쇼크 수쿠마란(Ashok Sukumaran), 산재이 반가르(Sanjay Bhangar)가 주축이 되어 2007년 결성되었다. 근거지인 뭍바이 추밀 마을에서는 15년 동안 옥상 극장을 운영해왔다(studio.camp).

“사람보다 카메라가 더 많은 이 시대에 영화란 과연 무엇일까?”, “도시는 거대하고, 이미지는(여전히) 자그마하다.” 캠프는 이 같은 질문을 품은 채 CCTV 카메라로 뭍바이, 맨체스터, 예루살렘, 카불, 시르자, 소말리아 등 세계 각지에서 작업한 주요 작품들을 5막의 구성으로 담았다. 3백60도 뷰를 제공하는 19세기 원형의 움직임은 캔버스인 피노리아를 연상시키는 형식을 통해 작품의 내부와 외부 함께 걸어볼으로써 오늘날의 전사된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작품이다. 서울에서 CCTV 카메라로 촬영하는 신작의 라이브 스트리밍인 카메라의 라이브 인무는 구도심과 도시 재생이 공존하는 을지로를 탐사하고 있다. 잘 비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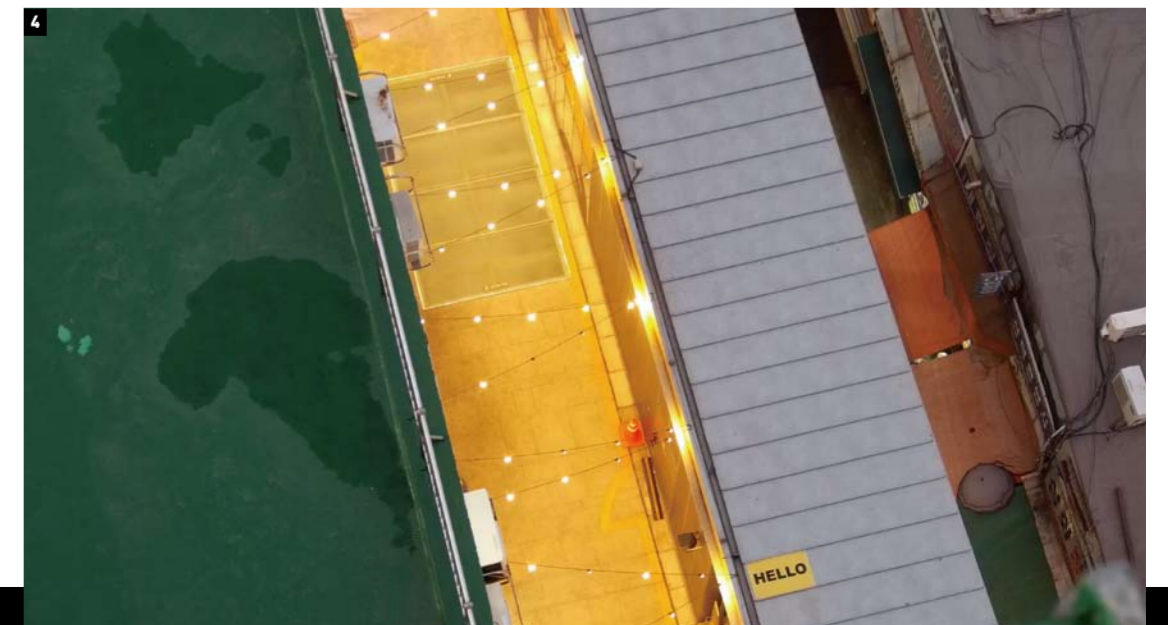


의 도시를 다니며 새로운 영화 만들기의 가능성을 탐험해왔다. 단순한 참여를 넘어 다양한 시간, 기술자 등과 개념적으로 협업하며, 참여적 작업을 지향한다. 이들은 백남준의 ‘참여’ 개념을 넘어 ‘공공’, ‘공동’, ‘공유’의 개념을 재설계하며 확장해가는 중이다. 이번 전시회 제목인 <캠프, 미디어의 약속 이후(CAMP After Media Promises)>는 2007년 첫 웹사이트에서 컴퓨터 스크린으로 제작된 ‘CAMP’의 10만 개 이상 되는 조합 중 하나다. 4개의 알파벳(c, a, m, p)을 추출해 시작하는 단어를 코딩으로 추출해 조합하는 것이기에 ‘진정(camp)’이라는 보통명사의 뜻도, ‘컴퓨터 예술 혹은 윤리적 정치(Computer Art or Moral Politics)’ 같은 뜻도 가능하다. 캠프의 미디어 작업은 거대한 자본주의 구조에서 권력과 노동의 문제를 추적하며 재정의하고 있다. 2004년 시장 안 TV 방송국에서 2021년 뭍바이의 CCTV로 촬영된 새 영화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다양한 개념을 탐구하고 있다.

<캠프, 미디어의 약속 이후> 전시가 던진 질문

캠프에게 미디어는 우리를 둘러싸고 유지하는 환경이다. 케이블 TV 이후, 전화 이후, 인터넷 이후, CCTV 이후 우리가 처한 세상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캠프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관찰자, 주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시퀀스의 범주를 재해석하고 재정의해나가는 중이다. 이번 전시에서 캠프가 선보인 대작 <무림 피노리아>는 대형 8채널 스크린을 통해 단연 시각적으로 압도하는 비디오 예시이다. 뭍바이, 맨체스터, 예루살렘, 카불, 시르자, 소말리아 등 세계 각지에서 작업한 주요 작품들을 5막의 구성으로 담았다. 3백60도 뷰를 제공하는 19세기 원형의 움직임은 캔버스인 피노리아를 연상시키는 형식을 통해 작품의 내부와 외부 함께 걸어볼으로써 오늘날의 전사된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작품이다. 서울에서 CCTV 카메라로 촬영하는 신작의 라이브 스트리밍인 카메라의 라이브 인무는 구도심과 도시 재생이 공존하는 을지로를 탐사하고 있다. 잘 비춰지

1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강릉(해운대)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중년 국제예술상 수상 작가전 <캠프, 미디어의 약속 이후(CAMP After Media Promises)>에서 선보인 8채널 스크린 작품 <무림 피노리아(무림)>.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인도 협업 스튜디오 캠프(CAMP)가 세계 각지에서 제작한 주요 영상과 작업을 비디오 예시로 재현한 작품이다. Photo ©노경
2 백남준아트센터 아카이브 소장 비디오에 대한 온라인 아카이브 nlp.ma 웹 화면, 캠프와 pad.ma 협력. 3 <캠프, 미디어의 약속 이후> 전시 포스터. 4 서울 을지로에서 CCTV 카메라로 촬영한 신작의 2021년 11월 23일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 스틸 이미지. CCTV.camp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볼 수 있다. 이미지 제공: 백남준아트센터



Exclusive Interview with _ Jonas Wood

full of Life

지겹도록 길어진 팬데믹의 영향일까? '그린 하비(green hobby)'가 소비 트렌드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예전보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식물을 기르며 이를 통해 위안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어느덧 '홈 가드닝'은 가장 트렌디한 국내 라이프스타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식탁' 혹은 '식집사의 활약'이 돋보이며, 식물에 대한 관심이 가히 뜨거울 정도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유행하기 훨씬 전부터 상쾌한 초록빛으로 집 안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식물의 매력에 매료된 아티스트가 있었으니, 현재 동시대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작가 중 한 명인 조나스 우드(Jonas Wood)가 그 주인공이다.

작가의 실력과 가치를 단지 유명세나 작품값으로만 판단할 수 없지만 조나스 우드는 현재 미술계에서 핫한 스타다. 지난 수년 사이 미술 시장에서 우드의 작품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많은 아트 컬렉터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입증했다. 2019년에는 명품 브랜드 루이 비통이 6인의 현대미술 아티스트와 협업해 작업한 아티카피신(Artycapucines) 컬렉션과 텍스타일 컬렉션에 참여했고, 박병의 탐, 지드래곤이나 블랙핑크의 제니 같은 K-팝 스타들의 SNS에도 종종 등장하며 국내외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자신의 유명세를 그렇게 실감하지는 못한다고 말하는 그는 원래 미국 동부인 보스턴 출신이지만 어쩐지 햇빛 찬란한 여유로운 캘리포니아가 잘 어울리는 인물이다. 실제로 현재 서부에 거주하는데, 2003년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한 이래 그의 '식물 사랑'이 줄곧 이어져왔다.

도에 작가인 부인과 공유하는 그의 집과 스튜디오를 가득 채운 열대식물과 최호는 작품에 무한한 영감을 준다. 단일 식

물을 그린 정물화뿐 아니라 스튜디오를 그린 실내 풍경화에서도 곳곳이 온갖 식물로 채워져 있으며, 심지어 스포츠 경기 등 다른 주제의 작업에도 패턴화된 식물이 등장하곤 한다.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한 우드의 작업은 추상적이면서도 구성적이고, 낯설면서도 친근하다. 원근법을 탈피한 2차원적 화면이 앙리 마티스와 데이비드 호크니의 스타일을 닮았다는지, 다양하고 선명한 색상이 인상파와 팝아트의 계보를 잇는다는지 하는 거창한 미술사적 의의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다채로운 색상과 감각적인 형태의 구성을 통해 그의 작품이 선사하는 시각적 즐거움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 최근 홍콩 가고시안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2021. 11. 23~2022. 1. 15)을 가진 그를 서면 인터뷰로 만나봤다.

StyleChosun(이하 S) 홍콩에서의 첫 개인전을 축하드립니다. 팬데믹 탓에 한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아시아 관객이 홍콩에서 직접 전시를 관람하지 못할 듯해 아쉬울 뻔합니다. 심지어 작가인 당신조차 홍콩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번 전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당신의 스튜디오에서 건축 모델링을 통해 원격으로 기획됐다고 들었는데, 결과물이 어떤가요? **Jonas Wood(이하 W)**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다행히 기획 단계에서 변경된 점 없이 계획한 그대로, 완벽하게 구현되었습니다.

S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작업에 더 집중하거나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전부터 워커홀릭이면서도 꽤 가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당신의 삶이나 작업에 끼친 영향이 있나? **W** 코로나가 유행하는 동안 전보다 건강해졌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내려 여전히 노력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느 장소를 방문할 때 인원수나 시간에 제약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는 한테 모여 포커를 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거의 2년 만에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좋네요.

S 오래전부터 식물을 주제로 한 독특한 풍경화를 그리거나 정물화 작업을 통해 주로 '식물을 모티브로 색상과 기하학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오셨죠. 이처럼 식물은 실내 풍경을 그릴 때뿐 아니라 스포츠와 관련된 작업이나 초상화 시리즈에도 배경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네요. 화분(pot) 시리즈의 경우에는 식물 자체가 주인공이 되고요. 생활 속 많은 사물 중에서 특히 식물이란 대상의 어떤 점에 매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W** 식물의 대칭성과 비대칭성을 좋아합니다. 식물 특유의 패턴과 반복성도 좋아하고요. 패턴에 담긴 재생성도요. 그것은 항상 동일한 데서 변형된 것처럼 보입니다. 식물의 색깔과 형태도 마음에 듭니다. 이런 점들이 페인팅과 드로잉을 하는 데 재미를 선사하죠.

S 검은색 바탕으로 작업했던 예전 작업 'Polka Dot Orchid(2015)'를 다시 접하게 되면서, 이번 전시에서 검은 배경을 활용한 작업을 선보이고 함께 살아가는 구성에 대해 고민했다고 들었습니다. 검은색 배경의 정물화를 다시 사색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평소 자주 사용하는 컬러풀한 색감과는 정반대인 검은색의 어떤 부분이 흥미를 유발했는지 궁금하군요. **W** 맞아요. 몇 년 전에 검은색 배경의 페인팅 작업을 했죠. (언급하신) 2015년에 선보인 그 작품은 완전히 흑백이었기 때문에 컬러로 된 여러 버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를테면 검은색 배경으로 색의 부재를 나타낼 수 있는, 검은 배경의 페인팅 연작을 만드는 데 관심이 생기기 된 거죠. 어찌 보면 검은색 배경 위에 색을 입힐수록 그 색상이 더욱 과장되는 것 같습니다.

S 당신은 자신의 작품을 '시각적 일기'(visual diary) 또는 '개인의 역사'(personal history)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이나 드로잉에 등장하는 모든 사물은 당신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작업 주제를 선택하고 그것을 그리는 방법에 있어 당신의 작품에 영향을 준 사건이나 뉴스, 문학, 또는 미술사적 사조 등이 있는지요? **W** 전 그저 사진을 찍고, 이미지를 모으고, 제 삶을 작업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라온 시대의 어릴 적 제가 눈앞에서 접했던 예술에서 많은 것을 얻었죠. 근현대미술(modern art)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미술관, 연주회장, 극장, 행사 등을 많이 다녔죠. 결국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던 것들에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광범위한 답변이라는 건 알지만) 근대 회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S 아시다시피, 앙리 마티스는 패턴과 직물로 가득한 마을에서 자랐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용했습니다. 패턴에 대한 당신의 지속적인 관심은 어디에서 비롯됐나요? **W** 오, 바로 그거예요! 근대미술의 거장 마티스라니, 좋은 예시네요. 제 생각에 패턴에 대한 저의 관심은 회화의 역사와 정물화에 등장하는 패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사실 찾아보려고 하면 우리 일상에는 늘 패턴이 존재해요. 마티스의 경우 그의 뒤탈방에 패턴이 있었죠. 저는 항상 일상에 존재하는 색깔과 형태를 이루는 패턴이나 블록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S 화면 구성부터 작품 완성 단계까지, 즉흥적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까. 보통 진행 단계가 각각 다른 여러 페인팅을 동시에 작업하나요? **W** 네, 페인팅을 할 때는 여러 그림을 각기 다른 단계로 진행하곤 해요. 한 그림을 일정 시간 작업하다가 다른 그림으로 옮겨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

리는 데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다가 느낌이 오지 않을 경우엔 또 다른 그림으로 전환해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요. 전 모든 과정이 마음에 들어요. 페인팅의 시작부터 중간, 그리고 마지막 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소중한 겁니다. 현재는 어떤 그림 하나를 완성시키는 데만 힘쓰고 있지만, 며칠 후에는 아마 다른 그림을 작업하고 있을 거예요.

S 어떤 작품은 집에서 발매한 이미지에 당신의 다른 식물 작업 속 이미지를 재현하는 등 출처가 다양한 이미지 콜라주로 구성되어 있죠. 예를 들어 이번 전시 작업인 'Small Yellow Orchid with Baby Snake'(2020)에서 노란색 난초 이미지 옆에 동글게 말린 뱀이 등장하는 큰 모습이 보여요. 또 다른 페인팅 'Bball Orchid with Dots #2'(2021)에서는 난초의 꽃잎 부분이 농구공과 혼합되어 있는 특징이 눈에 띄고요. 작품을 위해 자연물과 인공적 요소를 고르고 매치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W** 함께 있어야 할 것들을 그림에 같이 집어넣는 편이에요. 제가 찍은 식물 사진의 원본에 뱀이 나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쭈글쭈글한 작은 막대기 같은 형상을 보고 '오, 이 난초 위에 작은 아기 뱀이 있으면 멋지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나 검색한 이미지를 살펴보고, 꼭 사진이 아니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 중 뭘 그리고 싶은지 먼저 결정합니다.

1 세계적인 갤러리 손꼽히는 가고시안 홍콩 지점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작가 조나스 우드(Jonas Wood)의 홍콩 첫 개인전 모습. 지난 11월 23일 막을 올린 그의 개인전은 오는 1월 15일까지 이어진다. 2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조나스 우드. Courtesy the artist 3 '식물' 소재로 한 그림과 판화를 주로 그리는 조나스 우드의 홍콩 전시 작품 'Bball Orchid with Dots #2'(2021). Oil and acrylic on linen, 101.6 X 76.2cm. 4 조나스 우드의 홍콩 전시 작품 'Black Monstera Still Life'(2021). Oil and acrylic on linen, 147.3 X 114.3cm. 5 조나스 우드의 홍콩 전시 작품 'Bananas'(2021). Oil and acrylic on canvas, 101.6 X 76.2cm. 6 조나스 우드의 홍콩 전시 풍경. 꽃으로 가득한 열매(나무)를 배경으로 해 더 화사하고 생동감이 넘친다. 1, 6 ©Jonas Wood Photo: Martin Wong Courtesy Gagosian 3~5 ©Jonas Wood Photo: Marten Elder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gosian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고 싶은지 고민해요. 보통 다양한 이미지를 보고 많은 양의 드로잉을 그려본 다음 그 드로잉에서 이미지를 따오는 식으로 작업합니다.

S 제 생각에는 당신의 작품 가격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특히 저 같은 평범한 수집가들이) 당신의 판화 작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WKS 에디션(WKS Editions)이라는 전용 프린트 하우스를 가지고 있죠? **W** 맞아요. 전 판화를 사랑합니다. 판화와 드로잉은 페인팅 작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저로 하여금 많은 것을 시도하게 해주는 듯해요. 그래서 판화 작업으로 여러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저만의 판화를 제작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프린트 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판화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S 예전에 홍콩 가고시안 갤러리에서 부인인 구사카 시오(Shio Kusaka)와 합동 전시를 선보였는데, 두 분은 서로의 작업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당신의 작업에도 종종 부인의 작품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두 분은 예술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비평을 나누나요? 예술이 아닌 다른 가치나 사회 문제에 대한 철학 혹은 신념, 예를 들어 자녀 교육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W** 시오는 최고입니다. 그녀와 함께하고 아이를 키우는 건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녀는 정말로 인내심이 강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한 재능의 소유자입니다. 전 그녀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10년 넘게 한 공간을 공유했기에, 많은 걸 공유하는 일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작품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비평을 나누고, 안전한 느낌을 받는 게 당연해진 거죠.

S 마지막 질문이네요. 한국에 있는 당신의 팬 중에는 블랙핑크의 제니나 블랙핑크의 제니 같은 K-팝 스타들도 있어요. 특히 팀은 대단한 아트 컬렉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협력 기획한 2016년 소더비 경매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당신의 작품도 출품되었죠. 어떻게 그들과 친구가 되었나요? **W** K-팝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져요. 최근에 제니를 처음 만났고, 탐을 안지는 몇 년 됐어요. 그는 대단한 아트 컬렉터입니다. 그는 놀라운 플랫폼과 목소리를 보유하고 있고, 보기 드문 흥미로운 동시대 미술을 많이 공유합니다. 요새는 마크 그로찬(Mark Grotjahn)과 조엘 메슬러(Joel Mesler)에게 꼭 빠져 있더군요. 열렬한 수집가로서도 참 멋지고, 그들의 음악도 멋집니다! 글 : 인터뷰 김연우(프랑스 큐레이터), 고영현

대구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 <모던 라이프>

동서양을 초월한 예술의 여정을 만나다

현대미술은 새로운 어휘를 고안하는 일이자 형태를 찾는 고집스러운 탐구다. 그에 대한 답 역시 하나일 수 없기에 아는 만큼 매혹적인 미술 감상은 관람객에게도 미처 깨닫지 못한 아름다움의 존재를 (재)발견해나가는 여정이 되어준다. 작품은 오래 이래야 한다는 성급한 확신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작가의 유연함과 세밀한 통찰력을 끈기 있게 받아들이는 기나긴 탐험에서 좋은 나침반이자 길라잡이가 되어줄 전시가 대구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개관 10주년을 맞이해 프랑스 최초의 사립 미술 기관으로 손꼽히는 매그 재단(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과 공동 주최한 <모던 라이프(Modern Life)>전이 그 주인공이다.

42 음악과 함께 만국 공통어로 일컬어지는 미술. 하지만 직관적으로 즉각 울림을 자아내는 음악에 비해 현대미술은 기존 관념과 편견을 과감히 버리는 태도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무장하는 바람에 때로는 대중의 물이해를 초래해 외면받거나 오해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동서양을 망라해 미적 판단을 좌우하는 다양한 방법론이 전문 용어의 나열을 곁들여 꾸준히 제시되어왔지만, 결국 미술을 마주하며 느끼는 감흥의 정도는 궁극적으로 감상자의 몫이다.

미술의 궤적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보면 기원전 미술은 식량 채집 시대에서 농경 사회로 도약하며 예측불허의 자연을 통제하기 위한 인류의 염원에서 출발했다. 자연의 모방을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가 하면, 공동체 형성과 더불어 만물의 척도로서 인간을 바라보고, 때때로 왕의 위엄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기

도 하며, 종교의 교리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기도 했다. 이내 산업혁명과 더불어 사진 같은 기술의 진보를 등에 업은 근대미술은 시대가 주목하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쏘서 좋게 포착하는 것이 아닌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더 중시하기에 이른다. 당대 예술가 역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창조의 원천으로서 영감에 가치를 부여해왔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 명민하게 진화해온 미술사에서 '현대(근대)성(modernity)'이라는 의제는 낯선 방식과 개념을 앞세워 동시대인의 지각에 영향을 끼쳐왔다.

사유를 위한 아름다운 산책

대구미술관 <모던 라이프>전에 객원 큐레이터로 참여한 올리비에 델라발라드(Olivier Delavallade)의 말을 빌리자면 모더니티의 역사는 예술이 자율성을 획득한 역사, 특정 종류의 표준화된 형태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역사이기도 하

다.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호안 미로(Joan Miró)부터 율형근, 서세옥, 이배, 이우환에 이르기까지 양 기관의 소장품을 두루 선보인 이번 전시는 '모더니즘을 주제로 삼아 지난 2년에 걸쳐 진행한 공동 연구의 결과물이다. 작가 78명의 대표작 1백44점을 통해 당대 예술가들이 순수하게 예술에만 의지하며 부단히 추구했던 미적 근대성을 탈-형상화, '풍경-기억', '추상', '달', '초현대적 고독', '평면으로의 귀환' 등 테마별로 담았다.

한 편의 이야기와 같이 펼쳐지는 <모던 라이프> 전시는 숲길을 거니는 사유의 산책을 제안한다. 이는 1964년 아티스트들이 직접 아티스트를 위해 고안해 프랑스 남부의 생폴드방스(Saint-Paul-de-Vence)에 설립한 예술과 건축, 풍경이 고루 아우러지는 매그 재단에서 즐길 수 있는 예술 여정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최근에 작고한 크리스토프(Christo),



1 재탄화된 세상' 테마 갤러리. <모던 라이프> 전시를 위해 프랑스 문화부의 허가를 받고 한국에 반입한 마르크 샤갈의 'La Vie' (1964)을 비롯해 미로, 칼더의 걸작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이미지 제공 대구미술관 2 자코메티의 청동 조각상 '베니스의 여인'(1966)과 최정림의 '얼굴'(1963). Photo by 황다나 3 유영국이 유채로 그린 작품(왼쪽)과 노르웨이 작가 안나 에바 베르그만이 종이 먹으로 담은 풍경의 대조(오른쪽)에 이르기까지 두 미술관 컬렉션이 한데 빛아는 동서양의 조우가 흥미롭다. Photo by 황다나 4 '달' 색선에서 각각 숲(왼쪽)을 이용한 작업을 선보인 이배와 앤 매든의 작품이 나란히 배치된 모습. Photo by 고성민 5 페르낭 레제(Fernand Léger, 'La Partie de Campagne'(오라오로의 아유회'(1954), 캔버스에 유채, 245 X 301cm, Collection of Maeght Foundation 6 호안 미로(Joan Miró), 'Naissance du Jour'(낮의 탄생'(1964), 캔버스에 유채, 146 X 114cm, Collection of Maeght Foundation 5, 6 이미지 제공 대구미술관 7 <모던 라이프>전의 대미를 장식하는 7'관' 색선이 펼쳐지는 아이룸. Photo by 황다나 8 2018년 남프랑스에 자리한 매그 재단에서 개최된 이배 작가의 개인전. ©Andre Morin & Lee Bae



국내 작가로는 이배의 개인전을 선보이기도 한 매그 재단에서 관람객은 예술을 그 어떤 곳에서보다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접할 수 있다. 관람객과 작품을 품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전시관과 바깥 정원, 안뜰에 자리한 '미로의 미로(The Miró Labyrinth)'와 '저 멀리 아득한 지중해를 향해 열려 있는 자코메티의 뜰(Giacometti Courtyard)'. 조르주 브라크의 모자이크 수영장과 알렉산더 칼더, 한스 아르프 등의 조각상들이 들어선 여러 갈래로 뻗은 관람로까지. 남프랑스 매그 재단 미술관을 거니는 듯한 특유의 아늑함, 작품과 예술가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특별한 경험은 대구미술관 전시실의 흐름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인간과 예술의 관계 속 존재의 이유를 사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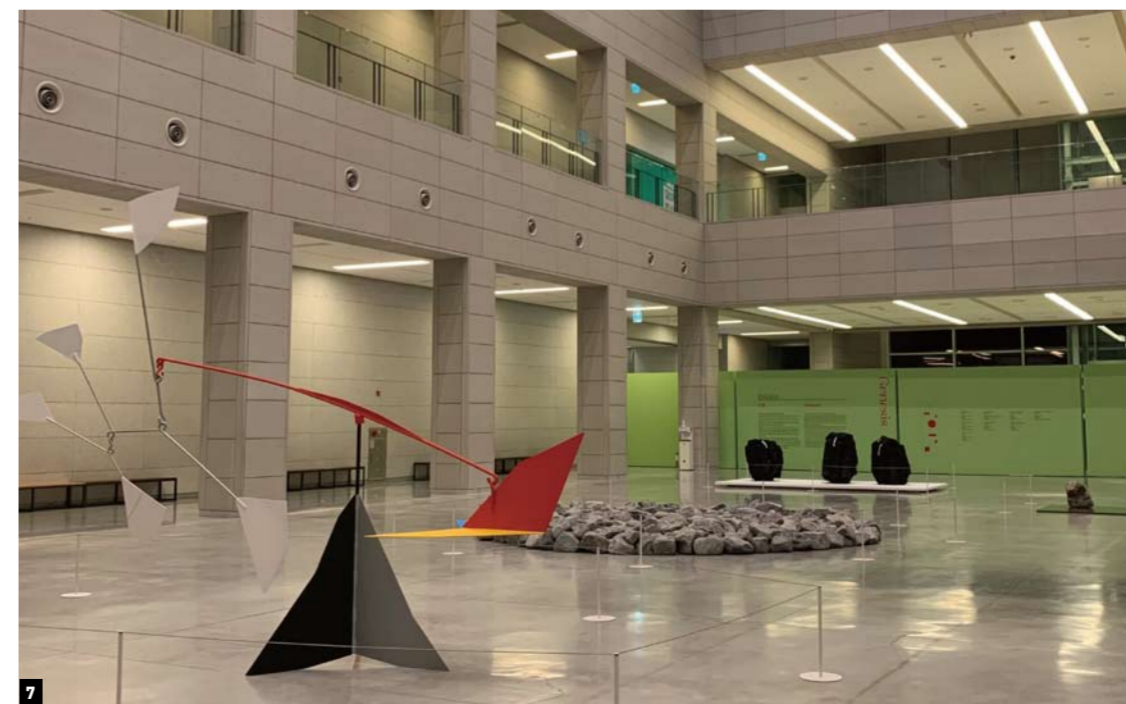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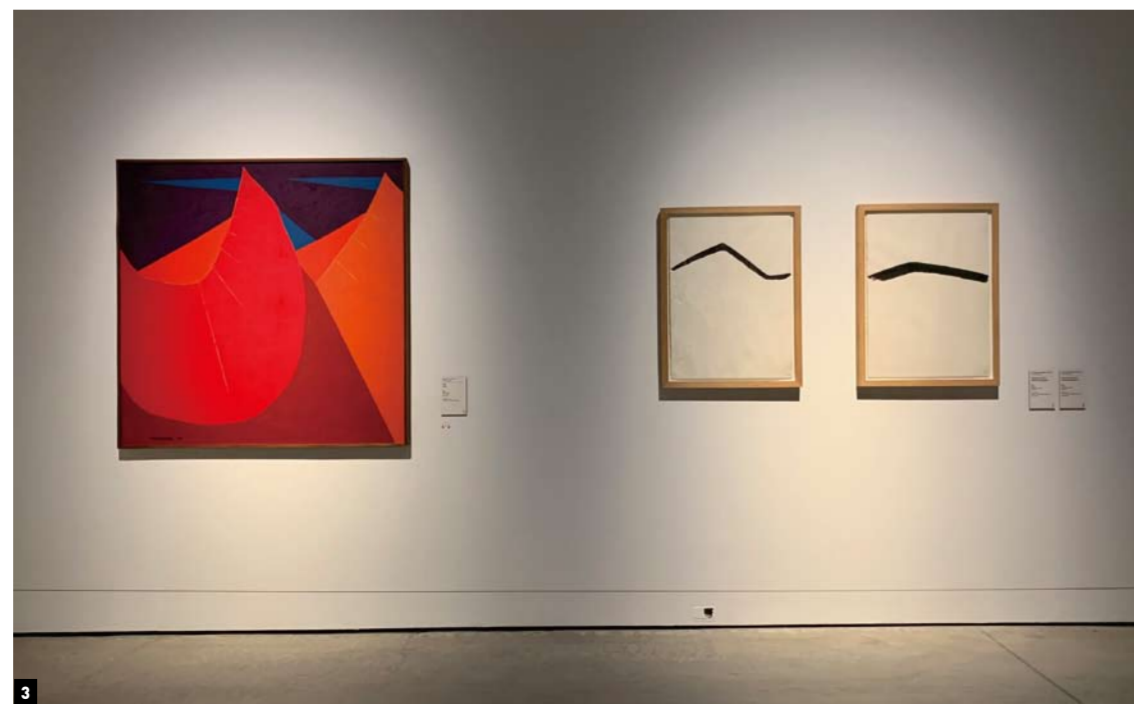
몇 마디 말로는 결코 정의하기 어려운 모더니티의 유희를 짚은 이 전시는 규범의 예술 너머 표현의 자유가 허락된 시대의 산물인 독창적인 작품 하나하나에 빠져 예술적 상상력, 색의 감각과 신뢰를 쌓아가도록 관람객을 초대한다. 프랑스와 한국, 두 문화의 조우, 서로 다른 회화의 전통을 지닌 두 미술계의 대비도 흥미롭다. 형상의 인퓌에서 정체성의 정수

를 찾아 기억을 더듬어가는 작업 과정은 금방이라도 비틀거리며 쓰러질 것 같지만 살아 있기 때문에 한없이 가벼운 자코메티의 청동 조각상 '베니스의 여인(Femme de Venise III)'(1956)에서도, 한국전쟁이 끝나고 강렬한 흑백 대비와 두꺼운 입체, 굵은 선으로 최영림이 그려내던 눈빛이 공허한 여인의 얼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자체로 기호이자 소통의 매개체인 '글(writings)'을 다룬 색선은 또 어떠한가. "언어라 함은 의도를 내포함을 뜻한다"며, "일찍부터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림을 그려왔고 한번도 그것을 언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피에르 솔라주의 작품을 이 색선에 걸어본 것은 큐레이터의 의도였을까. 앤 매든의 'And the word was god'(1979)에서처럼 미술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이해하도록 돕는 글자 그대로에 띄어 쓰기를 없애거나 형태에 약간의 변주를 주어 개념을 담기도 한다. 이는 신문지에 펜, 볼펜, 연필을 이용해 전면을 흑색으로 칠하는 인내의 작업 '무제'(2009)에 애초에 글씨가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의미를 철저히 지워내고 암흑 속 침묵만 남기는 최병소의 작업과 사뭇 대조된다. 하지만 유채로 산의 거대함을 무던히 캔버스에 담아온 유영

국의 작품(Work, 1973)과 종이에 먹으로 한 폭의 산맥을 단아하게 그려낸 노르웨이 작가 안나 에바 베르그만이 담은 북녘의 풍경(Paysage du Nord III, 1980)이 배치되는 풍경의 기억 앞에서 동서양의 비교는 그야말로 무색하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서의 '기원(genesis)'

전시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원에 이르기 전 펼쳐지는 '재탄화된 세상' 공간에서 3개의 노란 태양을 형상화한 칼더의 모빌과 서커스를 방불케 하는 청동 조각 '너머로', '예술에 대한 나의 전체적인 이론은 형태, 대중, 움직임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라던 칼더의 말을 되새겨본다. 매그 재단의 국보급 작품 샤갈의 '살(La Vie)'(1979) 속 파편들이 한데 빛아내는 희로애락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으로 창조하면 거의 모든 의도가 남는다. 머리로 창조한다면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던 작가의 의도를 진실로 들여다보고 싶어진다. 비로소 기원을 다룬 미술관 1층에 자리 잡은 아이룸에 다다른 리차드 롱과 이우환이 각각 작업의 재료이자 원천으로 삼은, '지구보다 더 오래된 시간의 덩어리(이우환)'인 돌 앞을 배회하고, 불에 완전히 전소된 나무의 잔재지만 새로운 에너지의 탄생이 근원이 되는 숲의 생성과 소멸의 무한한 교차를 담은 이배 작가 작품을 기민히 응시하다 보면 결국 예술은 동서양을 뛰어넘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의 혼적을 이해해나가는 여행이라고 절로 수긍하게 된다. 오는 3월 27일까지. <http://artmuseum.daegu.go.kr> 글 황다나(이화여대 Art & Luxury Business MBA 겸임교수)



산책하기 좋은 문화 예술 공간 3색

a stroll in space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에 참신한 미술관이 있을까? 누군가 냉소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대답은 “그렇다!”다. 다시 꼼꼼히 살펴봐야 할 멋진 공간을 갖춘 미술관들이 여전히 눈에 띈다. 현실이 답답할 때는 시간 여행을 하러 쾌적한 공간에 머물고 싶게 마련인데, 그럴 때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괜찮은 선택지다. 하지만 어지러운 세상에서 동선이 복잡하거나 디자인이 산만한 곳에는 가고 싶지 않은 법. 좀 더 ‘집’ 같은 편안한 느낌을 주고, 즐거운 영감을 제공하는 공간은 없을까? 자연스럽게 편안한 공간 디자인과 외부 자연환경으로 시선을 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추천한다.



스페이스K 서울

최근 새로운 산업 지구로 부상하고 있는 서울 마곡동은 ‘서울 산책을 하기에 좋은 곳이다. 고밀도 지역이지만 지나치게 고층으로 치닫지 않고 10층 내외의 건물들 사이에 거닐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격자형 도시 블록의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다리 문화공원에 스페이스K 서울이 들어섰는데, 멀리에서도 미술관 옥상으로 연결되는 구름다리가 풍경을 부드럽게 해준다. 입구에 위치한 베이커리에서 맛있는 빵 냄새를 먼저 맡을 수 있는 스페이스K 서울은 건물 전체로 부드러운 능선이 굽이굽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다. 미술관 내부는 능선을 따라 밖으로, 안으로 숨은 공간을 탐험하는 것 같다.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은 마치 하늘로 연결된 다리 같고, 높고 수직적인 주변부 도심 풍경과 무척 대조적이라 더 시원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한 건축가 조민석의 작품으로도 유명한 이 건물의 미학을 흥미롭게 표현한 에피소드가 있다. 스페이스K 서울을 오픈한 지 며칠이 지나 익명의 인물이 그에게 수십 장의 사진을 보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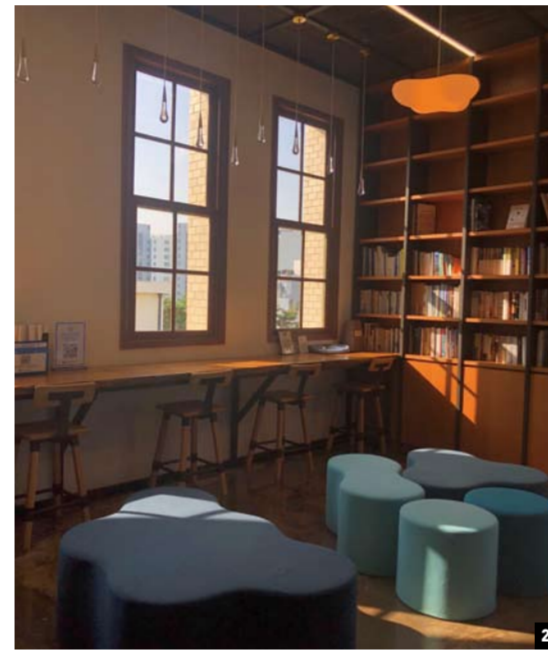
서 어느 날 공사장을 내려다보게 되어 사진을 찍었고, 덕분에 스트레칭을 많이 했으며, 개관 뒤부터는 미술관 옥상에 올라가 스트레칭을 한다는 얘기를 전했다고. 조민석 건축가는 네모반듯하게 압축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대조적인 곡선으로 마치 건물이 스트레칭하는 평상처럼 보여 뭉친 몸 근육을 풀고 싶게끔 하지 않았을까, 라는 즐거운 상상을 했다고 한다. 이는 미술관 건축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다. 옥상으로 이어지는 완만한 경사면과 부드러운 능선을 떠올리게 하는 아치형 문, 작은 분수, 하늘로 오르는 듯한 계단 등 스페이스K 서울은 사방이 하나의 조형 작품처럼 보이는 데다, 어디서나 부드러운 곡선을 만날 수 있으니 말이다. 내부에서 작품을 보는 방법도 독특하다. 2층으로 올라가면 네모난 창문같이 뚫린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1층의 작품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감상할 수 있다. 빛을 대하는 방식도 특별하다. 날카로운 그림자에 의한 빛의 대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산 기능이 있는 특수 유리를 전시장 천장에 적



1 서울 마곡산양단지 내에 문화 예술 나눔 공간으로 개관한 스페이스K 서울. 곡선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는 건축물이다. 2 스페이스K 서울의 건물 내부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치형 지붕을 액자 삼아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구조다. 3 스페이스K 서울 입구에 위치한 타원형 수반에 비친 반사율이 낮아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한다. 4 현재 신 리아프치히 회화를 대표하는 독일의 부부 작가 네오 라우흐(Neo Rauch)와 로사 로이(Rosa Loy) 2인전 (경계에 핀 꽃)이 열리고 있다. 문화적 토대를 같이 하면서 초현실적인 분위기로 신비로운 주제나 서사를 다루는 네오 라우흐, 동시대 여성의 역할에 초점을 두는 로사 로이와의 대조와 스타일 이혼이 많다. 오는 1월 26일까지. 이미지 제공 스페이스K 서울, 1~3 Photo ©신정섭

용했고, 미술관에서 전시를 보면서 공원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한 다양한 각도의 곡면 유리창을 설치했다. 지속 가능한 공간을 완성하기 위해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 건축으로 지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스페이스K 서울에서는 신 리아프치히 회화의 대표 작가이자 부부 네오 라우흐와 로사 로이 2인전이 개최되고 있다. 전시장에 간다면 시간을 들여서 네오 라우흐의 밤의 수호자를 보길 추천한다. 자신이 경험한 사회, 정치, 그리고 사상을 드러내는 작가도 가끔 자신만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마치 역사책을 보는 듯한 작품들 사이에 걸려 있는 밤의 수호자는 작가의 가장 사적인 고백 같다. 그림 속 누워 있는 작가를 바라보는 이들은 어린 시절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작가의 근심을 덜어주고 그들은 다시 자신들이 사는 세상으로 돌아간다. 침대 옆 화병은 실제로 작가의 선친이 드레스덴에서 구입한 화병이라니, 어쩔지 잊히지 않을 것 같은 몽클한 얘기다. 전시는 1월 26일까지 개최하니 꼭 가보길. 스페이스K 서울 근처 아름다운 서울식물원과 연결해서 가도 좋을 듯하다.



용인 호암미술관

용인 호암미술관은 사계절 모두 방문해보고 싶은 미술관이다. 전시 내용도 궁금하지만 미술관으로 가는 길 풍경이 너무 근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기 힘든 한국식 정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산속 깊은 호수를 옆에 두고 미술관까지 이어진 길에는 보물이 가득하다. 오후 3시의 부드러운 햇살을 받을 때, 화강암에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채색장이 떠오르기도 할 만큼 수많은 석탑과 석물이 가득하다. 동그렇게 웃는 동자석 한 쌍이 위치한 대낮 정원에서는 이름 모를 들꽃과 함께 마치 은물받처럼 따뜻한 기운을 풍긴다. 우리가 석탑의 나라에 살았든 과거를 조금 이해할 것 같기도 하다. 문득 한여름 발리 우붓으로 향하던 길도 연상된다. 짙은 녹음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석조물, 그윽한 얼굴로 묵묵히 돌을 다지고 있는 석장의 얼굴은 발리의 자연보다 즉각적인 감동을 준다. 마치 자연의 한 부분처럼 보이기 때문일까? 원시적인 돌 조각에 가까운 그것은 미술품보다 더 강렬했다. 정원의 석조물에서 나오는 은기와 빛이 이 작은 정원에 생기를 불어넣고 좀 더 익숙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듯하다. 얼마 전 리움미술관을 재개관하면서 일마당에 있던 루이스 부르주아의 ‘가이’ 청동 조각상까지 호수 한가운데 세워놓은 것도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멀리서 보면 마치 영화 <돌>의 세트장처럼 보일 정도다. 호암미술관은 조경으로 유명한 정영선 대표의 ‘한국식 정원’이 특히 유명하다. 한국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름다움을 인위적으로 만들기보다 주변에 있는 경치를 잘 읽어내는 것. 중국 정원, 일본 정원, 한국 정원의

1 한국식 정원의 미감을 보여주는 용인 호암미술관 정영선 대표의 정경. Photo by 김수진 2 정원의 안쪽에 위치한 ‘호암정’. 3 용인 호암미술관으로 들어가는 입구. 이곳에서부터 본격적인 ‘회암’이 시작된다. 정원이 들어오면 아름다운 한국의 보물들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2, 3 이미지 제공 호암미술관



국립기상박물관

최근 일반인에게 처음 오픈한 스웨덴 대사관저 건물 안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박물관이 있다. 서울 근대건축물인 국립기상박물관이다. 이곳은 근처까지 가도 쉽게 발견하기 힘들다. 기상청에서 우리나라 기상의 역사와 가치를 위해 서울기상관측소 등록문화재를 복원해 국립기상박물관을 설립했다. 레트로 감성을 그대로 실려 복원했고 지난해 개관했는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최근 들어 점차 인문유언서들의 성자가 되어가고 있다. 국립기상박물관은 1932년(본관), 1939년(중측)에 준공된 서울기상관측소(등록문화재 제585호)의 원형을 그대로 복원한 건물에 들어섰다. 전체적으로 모더니즘 경향을 띠나 옥상의 원통형 구조물 파래핏 등에서 아르데코(1920~30년대 장식미술)적 장식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단이한 근대건축물로, 전근대의 기상관측 역사부터 현대의 발전사까지, 우리나라 기상 과학 문화의 면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 박물관을 산책하다 보면 신라시대부터 하늘을 관측했고 조선 세종 때에는 각종 기구를 만들어 하늘의 변화를 살피는 사실이 조금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옛 사람들은 하늘의 변화에 따라 땅이 변하고 인간 세상 또한 달라진다고 믿었으니 말이다. 별자리, 달무리, 일식과 월식까지. 전사한 내부의 동선 곳곳 관람객을 배려하는 디자인이 눈을 즐겁게 한다.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역사적 내용에 대한 이해

1 국립기상박물관의 작은 정원에서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하는 1백25년 된 단풍나무. 2 국립기상박물관 1층에 위치한 ‘100년 상점’. 마치 북유럽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귀여운 공간이다. 3 1932년 서울기상관측소를 그대로 복원한 국립기상박물관은 세계 기상기공에서도 역사성과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미지 제공 국립기상박물관



차이는 인절미와 월병과 모치 맛 같은 것이라고 언젠가 정영선 대표가 말한 적이 있다. 총으로 말한다면 승무와 경극과 가부키의 차이라고. 위치조차 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장소에 정자를 두었고, 선인들은 이 정자에서 글을 읽고 음악을 하고 정자를 논했다. 그래서 정자는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의 소유가 된다. 한국식 정원의 미학은 이처럼 모든 공간이 공적인 공간으로 바뀌는 데 있는 게 아닐까. 용인 호암미술관으로 가는 길, 가장 깊은 정원에 ‘호암정’이라는 한 칸짜리 정자도 있다. 굽이굽이 산책으로 이어진 풍경 끝에 걸처지는 정자는 단원 김홍도의 진경 산수화를 떠오르게 한다. 정원 입구는 깊은 굴림으로 만들어 정원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죽림에는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수집한 박수들을 대석 밑에 재미있게 배치했다. 호암미술관 전체에서 가장 중앙부에 위치한 주 정원에는 오랫동안 미술관에서 모이던 이름 없는 다양한 석공의 석물이 배치돼 있다. 신라시대 석탑을 비롯해 가락이, 통일신라시대 삼체불, 고려시대 석불 같은 귀한 유물이다. 반면자리 이름 붙인 연못도 이름 없다. 메마른 연못이 뒤덮은 연못은 쓸쓸하지만,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 최근까지 금에 깃든 위대한 지혜를 폭넓게 보여주는 <이금잔>을 개최했는데, 미술관이 리뉴얼을 앞두고 있어서 다음 전시는 미정이다. 하지만 호암미술관의 아름다운 정원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글 김수진(다들렌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라프레리 at ABMB 2021

예술을 대하는 진심

스킨케어 과학과 예술의 공통점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닐까. 다양한 장르의 예술적 활동과 후원을 통해 특별한 행보를 보여온 라프레리가 지난 12월 열린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ABMB)에서 팬데믹의 시름을 잠시 잊을 만큼 눈부신 해변을 배경으로 대만 출신 아티스트 웬치 수(Wen-Chi Su)의 영감 넘치는 퍼포먼스 작품을 공개했다.



한국의 매서운 겨울 칼바람을 피해 지구 반대편 마이애미 해변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의 예상보다 길어진 팬데믹으로 2020년에는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던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가 아트 바젤 홍콩과 바젤에 이어 성공적으로 치러지며 지난해 데미를 장식했다.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아트 페어 브랜드답게 아트 바젤 마이애미 2021은 단순한 현대미술 장르의 기능뿐 아니라 NFT, 다양성 등 여러 이슈를 다루며 세계 미술 시장의 향방을 가늠하게 했다. 스위스 럭셔리 하우스 라프레리는 2017년부터 아트 바젤과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작품을 VIP 라운지 내 공간에서 선보여왔다. 스위스 대표 브랜드로서 스위스 바젤에서 출발한 세계 최고의 아트 페어와 손잡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라프레리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켜보면 그보다는 예술을 향한 브랜드의 애정과 진심이 담긴 행보임을 알 수 있다.

마이애미 비치들 '퍼포먼스' 수놓은 라프레리의 예술 협업

지난 12월 초, 파스한 빛이 수면 위로 쏟아지는 마이애미 비치에는 섬세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우아한 춤사위의 주인공은 대만 출신의 무용수이자 안무가, 그리고 뉴미디어 아티스트인 웬치 수(Wen-Chi Su). 작가는 작업에 앞서 라프레리의 고향 스위스에 머물며 그곳의 장엄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모티브로 레안 호수 표면 위에 반사되는 빛의 움직임을 춤으로 승화했고, 마이애미에서 직접 퍼포먼스를 공개했다. 바로 일출과 일몰 시간에 맞춰 파도를 배경으로 펼쳐진 'Moving Towards the Horizon'. 라프레리는 매 시즌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면서 관련된 주제로 글로벌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완성한 작품을 아트 바젤, 피악, 프리즈 등 3대 아트 페어를 통해 선보여왔는데, 웬치 수의 퍼포먼스는 처음으로 시도한 행위 예술 작품이다. 이번 협업의 토대가 된 신제품(오는 3월 발표될 '화이트 캐비아 에센스 엑스트라오디너리')은 웬치 수가 퍼포먼스로 표현한 '빛과 물의 눈부신 조우'처럼 축축하게 반짝이는 광채를 담고 있다. "제가 흥미를



1 지난 12월 초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글로벌 아트 페어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ABMB)의 주요 후원사로 참가한 라프레리의 비치 클럽. 언제나 그렇듯 글로벌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선보인 라프레리는 이번에도 처음으로 해변과 맞닿은 환경을 이르는 행위 예술 작품을 선보였다. 2 라프레리의 ABMB 2021 협업 아티스트로 선정된 대만의 예술가 웬치 수가 마이애미 해변의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3, 4 무용수이자 안무가, 뉴미디어 아티스트인 웬치 수는 라프레리의 초청으로 스위스에 체류하면서 본질적인 자연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고, 그것을 빛과 물의 대화 같은 시적인 퍼포먼스로 펼쳤다. 이미지 제공 라프레리

느끼는 지점은 행위 예술과 뉴미디어 예술을 결합해 새로운 표현 양식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라고 말하는 웬치 수는 과학과 기술의 진화가 우리 삶과 현실 인식에 미친 영향을 탐색해 '평온과 미(美)의 순간을 빛어내는 작품을 하겠다'는 포부를 지녔다. 그리고 이 같은 자신의 작업 철학을 위해 2005년 이랩(YiLab)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랩은 차이를 환영하고 '협업을 통해 예상 밖의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고자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본질적인 자연'에 바탕을 둔 예술과 과학의 조우

"저는 진정한 협업을 통해 영감을 얻는데, 라프레리 덕분에 저와 이랩은 이번엔 작품 주제인 빛과 물에 관한 경험을 개념화하고 창작할 수 있었습니다." 웬치 수의 설명처럼 이번 퍼포먼스를 구성하는 주 요소인 '움직임과 시간'은 모두 빛과 물의 유동성을 나타내는데, 이를 떠받치는 창조적 영감은 바로 그녀가 라프레리의 초청을 받아 몸소 경험한 스위스의 자연에서 비롯됐다. "급변하는 날씨, 다양한 빛깔, 흔들리는 물결 등 자연의 여러 요소와 제 몸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 감각적 경험을 창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스위스를 세 단어로 묘사하려면 저는 대자연, 흐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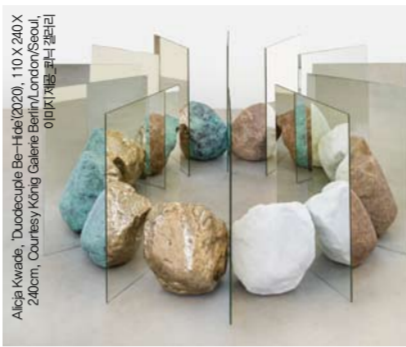
장엄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시간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빛과 물의 모습과 같은 10분가량의 퍼포먼스가 탄생했다. 어쩔 때는 천천히 움직였다가 빨라지는 신체의 리듬은 물의 모습을, 그리고 특별한 미러 필름을 사용해 굴절 반사되는 무대는 햇빛의 모습을 각각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 파도 소리에서 영감을 받아 작가가 직접 제작한 사운드트랙까지 더해져 관객은 평온, 자연, 심오한 힘, 덧없음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웬치 수와 라프레리의 협업은 이처럼 '시간'이나 '영원성'에 관한 관점에서도 좋은 궁합을 이루지만 혁신적인 여성 아티스트의 시선과 감각을 펼치는 기회를 선사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브랜드 탄생부터 예술과 과학의 창의성에 중점을 두고 예술 사랑을 실천해온 라프레리는 최근 들어 아토페어에서의 협업, 미술 전시 후원, 제품 디자인 등 여러 방면에서 여성 예술가들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적 감각을 불태울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는 브랜드다운 행보다. 글 라프레리(앳앤피를 콘텐츠 디렉터)



라프레리의 아트 협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member the EXHIBITION

역대급 팬데믹의 장기화로 우리 일상이 여전히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여러 미술관이나 갤러리, 아트 센터는 신중한 태도로 문을 열고 있다. 이번 아트+컬처 스페셜 자면에 소개한 콘텐츠 말고도 이주 풍성한 전시와 행사가 펼쳐지는 중이다. 올겨울에도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전율을 선사하는 미술 산책과 함께하기를.



코닉 서울 <알리시아 크바테> 개인전
코닉 서울과 페이스트갤러리 서울에서 동시 개최되는 알리시아 크바테(Alicja Kwade)의 한국 첫 개인전. 근작 30여 점을 선보이며 우리의 인식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벽'과 '신작 등도 포함된다. 전 시 작품들은 '순환적 움직임'이라는 공통의 모티프를 반복해 공유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계속해온 조각적 작업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작품 주위를 걸어보아야 한다.
전시 기간 1월 22일까지 문의 koeniggallerie.com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 Ai Weiwei Defend the Future
2021.12.11. - 2022.1.1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MMCA Seoul

국립현대미술관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 등
세계적인 미술가이자 영화감독, 건축가, 행동가로 명성 높은 아이 웨이웨이의 개인전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에서 지난 12월 개막했다. 표현의 자유와 난민의 삶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발표해 온 작가의 국내 미술관 첫 개인전이다. MMCA 덕수궁에서는 국민 화가 박수근의 첫 개인전 <꿈을 기다리는 나뭇>이 진행 중이다. 덕수궁 전관에서 한국적, 토속적 미감을 대표하는 작가와 그의 시대를 재조명한 역대 최대 작품이 기다리고 있다.
전시 기간 각각 4월 17일, 3월 1일 문의 mmca.go.kr



국제갤러리 <루이스 부르주아>, <권영우> 등
현대미술의 거장 루이스 부르주아 개인전이 10년 만에 국제갤러리에 돌아왔다. 전시의 주축을 이루는 생애 마지막 10년간 작업한 작품 '내면으로 #4 Turning Inwards Set #4'부터 설치 작품 'POIDS' 등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다. K2 전시 공간에서는 권영우가 동양적 자료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 기간 1월 30일까지 문의 www.kukjgallery.com



2021 THE 21ST 송은미술대상전 SONGEUN ART AWARD 2021.12.10 - 2022.2.12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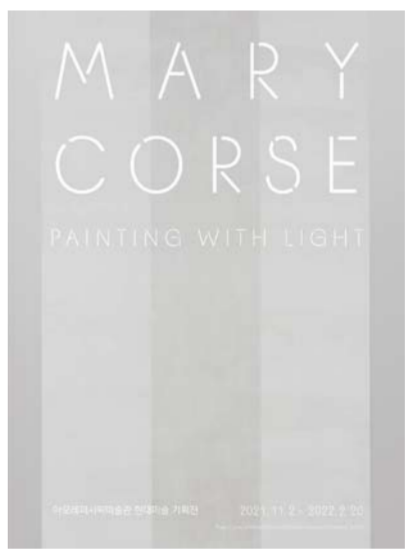
송은문화재단 <제21회 송은미술대상전>
영광 있는 동시대 한국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송은미술대상이 제정 20주년을 맞아 전시 참여 작가 20인으로 확대했다. 국내 신진 작가를 폭넓게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다. 이번 대상에는 5백39명이 지원해 20인 안에 든 권이람, 김경태, 김지음 등의 작가들이 화화, 조각, 설치, 사진, 영상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신작을 선보였다.
전시 기간 2월 12일까지 문의 songeun.or.kr



갤러리현대 <도운희-Berlin>
배후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것을 깊이 포착해내는 작가 도운희의 개인전이 1월 14일부터 열린다. 작가가 현대인의 무미건조한 삶 내면에 숨겨져 있는 시적인 부분을 어떻게 끌어낼지 공금증을 자아낸다. 특히 이번엔 즐겨 사용한 연필과 붓 대신 자신의 손을 이용해 더욱 역동적인 작업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전해져 기대를 모은다.
전시 기간 2월 27일까지 문의 www.galleryhyundai.com



수원시립미술관 <아연 올라프: 완전한 순간-불완전한 세계>
네덜란드 대표 사진작가 아연 올라프의 전시가 한국-네덜란드 수교 60주년 기념전으로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다. 40여 년간 이어진 작가의 작품 활동을 이루는 총 1백10여 점의 작품을 4개의 색선으로 나누어 선보인다. 최근작 '만유절, April Fool'(2020)은 한국에서 최초 공개한 작품으로 코로나라는 현 상황에 처한 인간의 나우움을 일깨운다.
전시 기간 3월 20일까지 문의 suma.suwon.go.kr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메리 코스: 빛을 담은 화화>
60년간 빛을 주제로이자 재료로 삼아 열정적으로 탐구해온 메리 코스. 화화에 빛을 담아내고자 여러 재질과 기법을 실험해온 작가는 관람자의 인식과 위치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화면을 만들어냈다. 1960년대 초반부터 2021년 최신작까지 대표작 34점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빛 화화, 흰 빛 화화, 색채 화화, 검은빛 화화, 검은 흙 등의 시리즈가 6개의 전시실을 따라 펼쳐진다.
전시 기간 2월 20일까지 문의 ampa.amorepacific.com



아트바젤 마이애미 비치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
2021.12.11. - 2022.1.1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MMCA Seoul



마이아트뮤지엄 <사람 특별전>
개관 2주년을 기념한 특별전으로 마르크 샤갈을 초대했다. 기존 국내에서 진행했던 샤갈전과 달리 단독으로 다루지 않았던 성서를 주제로 한다. 유대인으로 남프랑스에 정착했던 샤갈의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강기슭에서의 부활', '푸른 다티 양' 등 유화, 과수를 포함한 19점의 명작과 아시아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4m에 육박하는 대형 테이프트리 2점, 독일 콘스트무제움 파블로 피카소 원시소 소장품 총 2백20여 점의 오리지널 작품을 4부로 구성해 선보인다.
전시 기간 4월 10일까지 문의 www.myartmuseum.kr



서울시립미술관 <빛: 영국 테이트 미술관 특별전>
이llum 들어도 알 만한 거장 43명의 작품 세계를 탐구해볼 수 있는 특별전. 모네, 칸딘스키, 백남준, 구사마 야요이, 올라푸르 엘리아슨, 제임스 터렐 등 18개국이 동시대 작가들까지 다양한 매체로 빛을 탐구해온 작가의 작품 1백10여 점을 모았다. 영국인들이 사랑한 국민 화가 윌리엄 터너의 '그림자 어둠 - 대홍수의 자취', 클로드 모네의 '엠티 강가의 포플러' 등 영국 테이트 미술관 소장품을 서울 한 가운데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기간 5월 6일까지 문의 www.tatelight.kr

임민미술관 (IMA Picks 2021)
국내외 예술 현장에서 지금 주목할 가치가 있는 3명의 작품을 선정해 예술가가 우리 시대를 읽는 서로 다른 방식을 살펴본 임민미술관의 기획전. 올해의 (IMA Picks)는 32의 작가로 윤석남(b. 1939), 홍승혜(b. 1959), 이은재(b. 1987)를 초대했다. 각기 다른 세대를 경험해온 여성 작가 3인의 사상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오늘의 세계를 새롭게 탐한다.
전시 기간 2월 6일까지 문의 ilimn.org



DIOR

HIGH JEWELLERY

White gold, pink gold, pink spinels,
pink sapphires and diamonds.